

New Vision

뉴 비 전 교 회 매 거 진

통권 250호

SPRING
2023





충성된 주의 교회와 일꾼들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티스** (πίστις) 인데, 믿음 이라는 단어와 가깝습니다. 영어번역에서는 faithfulness로 번역한 것을 봅니다. 이런 점에서 충성은 full of faith (믿음이 가득하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만 하다라는 뜻으로, 맡은 일을 잘 감당하여 그 일을 맡긴 주인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 주는 것이지요.

천국비유로 알려진 달란트 비유에 보면, 충성된 종들이 나오입니다 (마태25:14-23). 주인에게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인의 뜻을 받들어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주인이와서 보고는 그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이렇게 충성에는 순종과 기쁨이 따르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충성의 대명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3장14절에 예수님을 가리켜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한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충성하셨다고 증거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셔서 성육신하여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충성하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닮고 따르는 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지난 부활주일에 11분의 집사님들을 주의 일꾼들로 세웠습니다. 다섯 분의 신임 안수집사님들과 여섯 분의 신임 권사님들이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딤후전1:12)라고 한 것처럼, 주께서 믿어주시고 교회와 복음사역을 맡겨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릎꿇었던 모습이 아직도 우리 눈에 선합니다. 그러며 충성된 주의 일꾼들을 통해 주께서 이루어가실 복음사역이 기대가 됩니다. 더불어 주의 일꾼들을 세워주심으로 우리 교회에 기쁨과 힘을 더해 주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더욱 예수의 복음 사명을 더욱 충실히 감당하게 하려는 주의 선한 뜻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충성이 우리 교회와 모든 주의 일꾼들 안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과 칭찬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이진수 올림

발행인 | 이진수

담당교역자 | 강석운

출판임원 | 승필경

편집장 | 배난모

편집팀 | 이영숙, 최영수, 이지연

윤미영, 최희주, 정재오, 김원철

디자인팀 | 강신웅, 정유진

발행한곳 | 뉴비전교회

New Vision Church
1201 Montague Expressway
Milpitas, CA 95035
408. 719.0000
www.newvisionchurch.org

New Vision은 뉴비전교회에서 일년에 두 번 출간되는 잡지로, 성도의 교제와 전도의 목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가정, 교회, 사회에서 느끼시고 경험한 내용을 자유롭게 쓰셔서 출판함 또는 출판팀 메일(nvcpub@newvisionchurch.org)로 제출하시면 선별하여 뉴비전호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믿음과 섬김의 본을 보이는 분이냐 좋은 모임 또는 알고 싶은 사역에 대한 취재를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본서의 글, 사진, 그림은 뉴비전교회의 소유이며 사전 허락 없이 무단 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 New Vision Church 2023
All rights reserved.

ON THE COVER

[사진 | Pexels.com]



Contents

2	담임목사 칼럼		이진수 담임목사
3	목차		
4	교회소식	신임 사역원장 소개	원종익
6			김일영
7	선교	난민팀 사랑의 이웃 돕기	안영섭
8		미얀마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유선주
9		N국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정혜윤
10		튀르키예, 조지아, 아르메니아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윤형조
13		Long term Obedience in One Direction	Daniel Lee
14		사랑으로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된 선교 여행	Serena Yoo
16			김일영
18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신재희
19		그리웠던 첫사랑을 찾다	김애경
20		안디옥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김지은
22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을 보다	김유미
24	차세대사역원	중고등부 겨울수련회	주정애
25	간증: 뉴비전성경학교	바울서신	이지연
26		신약일주	김영현
27	간증: 향수	믿음과 참 자유	장영미
27		마더와이즈 회복반을 마치며	이은희
28		우리는 그의 것이니	전연향
29		마더와이즈 회복반을 마치며	박순희
30		엄마라는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영
30		마더와이즈 자유반을 마치며	성은진
31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선경
32		자유 의 큰 보따리	전지영
32		마더와이즈 자유반을 마치며	손주영
33		마더와이즈 회복반을 마치며	박민주
34		3단계를 마치며	안지현
35		3단계를 마치며	유정란
36		참 평안, 참 자유	이지영
36		Everyday Christian	임은영
37	간증: 전도폭발	제58기 전도폭발 훈련을 마치며	장리나
38			장은주
39			김정훈
40	간증: PSP	퍼스펙티브스 5기 훈련을 마치고	이가화
41			류지철
42	간증: 침례식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	신혜경
42			전지혜
43			조성희
44	수필	고양이	조재훈
46	인터뷰	김필순 권사	강신웅
48	우리 가족은요	Michelle & Dustin Han 가족	배난모
49	추도문	이한나 권사님을 추모하여	한송이
50	영화로 만나는 고전(22)	플란다스의 개	성혜정 목사
51	설교 토크아보기	신년 특별새벽기도회	안재규 목사
52	시	내 삶이 일년 밖에 남지 않았다면	편집팀
53	사진으로 보는 뉴비전		이한나
			출판팀



신임 사역원장 소개 <선교사역원>



글 | 원종익

지난 제직회의 후에 김성호 목사님을 통해서 사역원장으로 선출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묘한 감정이 교차했다. 뽑아주신 교우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 내가 과연 이 직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 지난 몇 년간 후보로 이름이 올라갈 때마다 고사했던 목사님께 대한 죄송한 마음 등으로 복잡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어 보았다. “왜 그러셨어요?” 여전히 침묵하시는 하나님….

내가 선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기뻐한 사람은 아내와 어머니였다. 아내와 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서로 많이 도와준다. 목자로 섬길 때는 물론이고 가정사역 중보기도팀에서 섬길 때도 그랬고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상담팀에서도 함께 섬겼다. 뉴비전 성경학교 과목인 “친밀한 부부의 삶” 에서 교사로 섬길 때에도 자매님들을 위해 아내는 항상 동참해 주었다. 물론 내가 아내를 도울 때보다는 아내가 나를 도와줄 때가 훨씬 많다. 신앙에 있어서도 나보다 더 신실하고 내가 게으름을 피울 때마다 옆에서 따뜻한(?) 말로 나를 정신차리게 해준다. 그런 아내가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다. 부모님은 멀리 한국에 계시고 연로하시지만 어머니는 항상 우리 부부를 위해 기도하시며 아들 며느리가 믿음 가운데 행복하기를 바라신다. 내가 교회의 직책을 맡아서 기뻐하셨다 기보다는 교회를 위해 충성되어 섬기는 모습을 기대하시며 기뻐하시는 것이라 생각한다. 어머니가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다.

다음으로는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교회의 목사님들과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축하해주셨고 목장 식구들과 내가 섬기고 있던 팀의 교우들도 환하게 웃는 얼굴로 축하하고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다.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

선교사역원장으로 결정된 건 담임목사님 방에서 추천을 통해서였다. 구제섬김사역원, 선교사역원, 예배사역원, 운영사역원 등 4개 사역원의 사역원장을 뽑는데 선교사역원을 제외하고는 나는 다른 3개 사역원에서는 별로 섬긴 적이 없다. 선교사역원은 2018년에 임원을 시작으로 기획팀, 단기선교팀, N국팀, 행정팀에서 섬기고 있었다. 물론 무슨 사역원을 섬기게 되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많은 교우들이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리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었다. 그런데 정작 추천을 하고보니 내가 선교사역원을 섬기게 되었다. 할렐루야! 내가 잘 섬길 수 있는 사역원이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익숙한 사역원이어서 마음이 좀 안정이 되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이다.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선교에 대한 나의 생각은 아직도 내가 고등학생 때 읽은 A. J. Cronin 이 지은 “천국의 열쇠” 라는 소설에 나오는 치섬 신부의 이야기를 넘어서지 못한다. 워낙 재미있게 읽은 책이고 감수성이 예민한 시절에 읽은 책이라 주인공의 희생적인 섬김이 선교에 관한 나의 생각을 고정시켜 놓은 것 같다. 대학생 때에는 기독교 모임에 들어갔었는데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 동안에 목사님과 함께 시골에 있는 교회로 어린 아이들과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성경학교를 했었다. 목사님은 저녁에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부흥회를 인도하셨다. 모두 자비량 선교였고 그건 목사님도 마찬가지였다. 자력으로는 여름성경학교도 열 수 없고 부흥회 강사도 초대할 수 없는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들이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가난한 것은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다. 교인들의 따뜻한 사랑과 희생, 그리고 현지 목사님의 복음과 교회에 대한 열정이 재정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것 같았다. 정말 어려운 교회는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고 교회 구성원간에 서로 반목하는 교회였다. 성경학교를 위해 준비해간 좋은 것들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다. 함께 오신 목사님도 아주 난처해하셨던 기억이 난다.

어떤 마음을 갖고 선교사역원을 섬겨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 “겸손과 연합으로 섬기자”라는 표어를 생각해 보았다. “겸손과 연합” 말고도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많은 덕목이 있을 것이다. 신실하게 섬긴다든지, 열심히 섬긴다든지, 기쁨으로 섬긴다든지 하는 것 말이다. 모두 중요하고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다. 하지만 나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나 직책을 맡아서 섬길 때 겸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흔 아홉 개의 훌륭한 좋은 사역을 하다가도 한 번 겸손을 잃어버리면 그 전에 한 아흔 아홉 개의 훌륭한 좋은 사역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 겸손할 수가 없다.

겸손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속에서 꿈틀대는 교만을 어찌하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이 또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도리밖에는 없는 것 같다.

연합은 말할 것도 없이 요한복음 17장에 “우리과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모델이다. 교회의 분열로 인해 생기는 어려움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연합은 가족의 기본 단위인 부부로부터 시작해서 어느 공동체이나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일 것이다.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라 믿는다.

다른 사역원도 마찬가지로겠지만 선교사역원에는 두 개의 중요한 문서가 있다. 하나는 보통 시행령이라고 불리는 “뉴비전교회 선교 비전과 정책”과 “뉴비전교회 단기선교 지침서”이다. 모두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 뉴비전교회 선교사역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운영을 하라고 믿음으로 만들어놓은 규정이라고 믿는다. 사역원 임원회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가 결정을 내리는 것인데 이 결정을 내릴 때 개인의 생각에 따라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잘못된 규정은 또한 절차를 따라 개정하면 될 것이다. 규정이 없는 경우는 전례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며 선교담당 목사님이신 송영빈 목사님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고 생각한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신다고 믿는다.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를 나도 좋아한다. 나의 모든 좋은 친구들은 다 교회에 있다. 기쁜 일, 슬픈 일, 즐거운 일, 어려운 일 등 삶을 함께 나누는 좋은 친구들이 모두 교회에 있다. 예배 시간에, 목장 시간에, 또는 쉼터 로템에서, 또는 사역의 현장에서 그 친구들을 만나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다. 말을 나누지는 않고 눈인사만 하더라도 반갑다. 일 년에 한 번 부모님을 뵈러 한국을 방문하면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는데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라 반갑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의 생각은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있음을 느끼며 마음이 불편해진다. 내가 변한 걸까?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고, 등을 토닥겨주고, 점심식사를 같이 하고, 집에 초대해서 나를 위로한 분들은 모두 교회의 친구들이다. 사역하며 힘든 일이 있으면 일을 나누어서 하며 동지애를 느낀다. 모두 소중한 나의 친구들이다.

주일 예배 때 안재규 목사님이 지휘하시는 성가대의 찬양을 듣고 있으면 가 보지는 않았지만 카네기홀이 부럽지 않다. 내가 어디서 이런 호사를 누릴까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나에게 정말 소중하다. 내가 이렇듯 좋아하는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역원장으로 섬길 분에 넘치는 기회까지 주시니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은 때에 따라 나에게 찬양을 주신다. 나도 모르게 마음에 떠오르는 찬양을 흥얼거리다 보면 나의 처지에 꼭 맞는 찬양이라는 생각에 깜짝 놀라곤한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찬양을 주셨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되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되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내가 걸어온 인생길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을 잊지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 같다. 2년 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같은 찬양을 주시기를 기대해본다.





신임 사역원장 소개 <구제섬김사역원>

글 | 김일영

구제섬김사역원을 섬기기로 결정이 난 순간부터 처음 며칠간은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사역을 옆에서 지켜보던 입장에서 이제는 그 사역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과 함께 내가 과연 3년동안 이 사역을 잘 이끌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역 배정이 이루어진 바로 다음 주말부터 사역 현장을 돌아보기로 마음 먹고 토요일 아침 만나 사역과 주일 이른 아침 무숙자 사역 현장을 찾아간 순간 이러한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그 사역 현장에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사역하시는 수많은 봉사자들과 집사님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역원장으로서 할 일은 그저 이 분들이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뒤에서 돕고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일의 친교 사역 현장에서도 와서 봉사하시는 목장분들과 또 배식을 받아가시는 성도님들과 눈 맞춤을 하며 나누는 인사 속에서 받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역원장으로서 앞으로 함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며 사역하시게 될 임원집사님들에 대해서는 사역의 최우선 순위에 함께 동역하므로 기쁨이 있도록 하고 싶은 것이 저희 소망입니다. 끝으로 친교실에서 매주 음식 준비로 섬기시는 주방장님을 비롯한 helper들, 친교부 임원 집사님들, 친교팀장님들, 목장의 목자/목원분들에게 따뜻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신임 사역원장 소개 <운영사역원>

글 | 안영섭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운영사역원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처음 역할을 맡게 되었을 때 주변 분들은 일이 많을 것을 염려해 주셨으나 저는 그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의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데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최근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나의 역할이 길이 없는 곳에 억지로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길로 모든 사역이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막힌 곳은 열어 주고 취약한 부분은 북돋우어 주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분들과 함께 섬기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맡겨진 일을 수월하게 하실 수 있도록 격려하며 늘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고 혹시라도 어려움이 예상될 때는 하나님께서 편안한 길을 열어 주시기를 구하며 맡기신 사역을 충성된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가 사역원을 함께 섬기는 분들과 제게 늘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전4:2)





난민팀 사랑의 이웃 돕기

글 | 유선주

“Hi, We are touched by your seed academy’s thoughtfulness on the occasion of Christmas.
In fact, the gift gave them an impression that Christmas is about giving. Happy Holidays and Merry Christmas.”
- From the OO family.

난민선교팀 임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각 난민 가정을 방문하여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한 후, 이번에 새로 조인한 아프간 가정으로부터 감사 메시지를 받았다. “와 이 분이 Merry Christmas라고 하시네!!” 처음으로 모임에 참석하려 오던 날의 어색함, 아이들의 영어공부와 컴퓨터, 악기 수업을 통해 조금씩 봉사자들과 가까워 지던 순간들.. 난민 가정 아버지와 그동안 넘어왔던 수많은 어려움에 대해 함께 얘기했던 일들.. 크리스천들에 대한 신뢰가 쌓이며 크리스마스 파티에 함께 예수님 탄생에 대한 연극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식사 기도하는 일에 마음이 열려 가는 것을 본다. 이 모든 순간 조금씩 그 가정의 마음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과 함께 기쁨이 물려왔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난민 가정을 위해 라이드를 하고, 정성스레 간식을 준비하고, 영어, 컴퓨터, 악기 등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 도와주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의 착한 행실들이 난민선교팀을 통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정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을 얻게되는 작은 씨앗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미얀마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글 | 정혜운

지난 10월에 미얀마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전 이번 미얀마는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 해에 벌써 선교를 다녀왔고, 또한 이직을 한 직후라 휴가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번 쿠르디스탄 선교는 먼저 가고 싶은 마음을 주셨고 거기에 순종했을 때 안 되는 상황을 정리해 주셨다면, 이번 미얀마 선교는 전혀 마음이 없었는데 먼저 상황을 너무 잘 정리해 해 놓으시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케이스였습니다. 웬지 이런데도 안 간다면 하나님께 무지 죄송한 생각이 들거 같다는 생각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구테타로 인해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이기도 하고, 거기에 미국과 사이도 안 좋아, 주위에서 미국 시민은 비자를 안 준다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오는 팀은 4일만에 나온 비자가 저희는 3주가 지나도록 안 나와 못 가는건 아닌가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저흰 결국 비자가 나왔고 갈수 있게 됩니다. 더욱 나아가 미얀마 현지 상황이 안 좋다는 이유로 한국서 오기로 한 수출팀들은 다 안 오기로 했는데 저흰 그대로 가기로 해서, 사실 의아해 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두려운 마음이 컸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안 좋으면 취소률을 했을까 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한 이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저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얀마 땅에 도착했을 때는, 군부가 잡고 있는 나라라고 못 느낄 정도로 사람들은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수술실 개원 예배는 잘 마쳤고 또한 일주일 있으면서 장철호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신 병원도 들리고, 한혜경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한글어 학당에도 들려 아이들과 같이 예배하고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일요일엔 선교사님들이 후원하는 현지 교회 타와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광경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선교사님 제자의 어머니가 하는 쉼비다 센터라는 유치원을 방문했는데, 진짜 그 어머니의 집 뒤뜰 닭장에서 아이들을 모아 가르치는 걸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다행히 선교사님들의 후원 덕분에 그나마 좀 더 나은 모습을 갖추고는 있지만 돌아가면 제일 먼저 좀 더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번 선교에서 저한테 맡겨진 사역은 딱 하나였는데 선교사님이 하시는 한글어 학당에서 아이들을 위해 비전 특강을 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비전 특강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다가 그냥 전 제 삶을 간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약사가 되게 되었는지 나누는게 제일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열심히 준비하고 갔습니다. 제딴엔 저도 약사가 되기까지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착해서 정작 아이들과 얘기를 나눠보니 난감해졌습니다. 저희가 못 느끼는 쿠데타의 영향을 이

들은 매일 느끼면서 살고 있다는걸 알게 됩니다. 아이들이 사는 곳엔 아직 통행금지가 있고 도시에서 좀 벗어난 곳에선 폭탄도 터지고 그런 상황이란걸 알게 됐습니다.

또한 현재 모든 아이들이 군에 반대하는 시위로 학교를 안 가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안 가니 미래가 없고 그래서 이 아이들은 꿈이나 비전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눔을 가진 아이들에게 꿈이 뭔지 물어봤더니 많은 아이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가는것이 꿈이라고는 대답했지만, 그럼 한국에 가서 뭐하고 싶어 라는 질문엔 확실한 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꿈은 단지 미얀마를 벗어나는 것이 된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맘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는 기회와 축복의 땅인 미국에서 살아온 나의 삶이 얼마나 공감미 같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나눔으로 공감이나 도움은 못 주더라도 반감이나 슬픔을 주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준비해간 걸 안 할 수는 없어서 기도를 많이 한 후 특강을 했는데 다행히 아이들이 잘 들어주고 호응해 줬습니다. 돌아오면서 전 계속해서 이 아이들을 맘에 품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비전과 꿈을 가질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이 몇 년 전에 한국에 데려가서 수술을 한 아이들의 집들을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들 중 한 집엔 몇 년 전에 심장 수술을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2차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놓고 송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아이의 할머니가 옆에서 계속 "아멘"을 하는 걸 한혜경 선교사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할머니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눈 앞에서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걸 처음 경험한 거라 감동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료 선교의 절정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그걸 통해 영혼까지 살리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게 됐습니다. 또한 수 년 동안 선교사님이 뿌리신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는 그 자리에 저를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할머니를 통해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선교에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들도 많이 다녔지만 또한 같이 관광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낼수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장철호 선교사님과 한혜경 선교사님 매력에 푹 빠지게 되면서 이런 귀한 인연을 주신 하나님께 또한번 다시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불교가 삶을 붙잡고 있는 이 미얀마 땅을 위해 꾸준히 기도해야겠다는 소명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N국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글 | 윤형조

살림! 올 봄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OECD 국가 중 한국의 자살률이 제일 높은데, 탈북자의 자살률은 그보다 더 높다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탈북자가 목숨을 걸고 끔찍한 과정을 통해 어렵게 한국에 왔는데 적응하지 못 하고 자살한다는 소식에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 사이의 국경이 완전 봉쇄되고 중국의 인공 지능을 이용한 감시 제도가 강화되어 탈북이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소식도 들으며 북한의 문은 더 닫혀지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랫동안 북한 사역을 이끌어 오신 손창순 집사님을 통해 그동안 해 오던 뉴비전교회의 단기 북한 사역도, 중국이나 러시아도 가지 못하게 되어 2022년에는 한국에 있는 탈북자 관련 교회나 단체를 방문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행히 저희 부부가 9월부터 한국을 약 3개월 방문할 예정이었고 단기 선교 기간과 겹쳐 저희도 감사함으로 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9월 16일부터 22일까지 탈북자 교회들, 탈북자들과 그들의 자녀를 위한 학교, 교회 안에 설립된 신학교들, 송실대학교 내의 통일 연구원, 비무장 지대 탐방 등을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90년대 말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대부터 급격히 증가한 탈북민들이 이미 35,000명 정도 남한에 정착해 20~30%가 교회에 다니며 (탈북자 교회 ~70개) 신앙 생활을 하고 일부는 귀한 일꾼으로 양성되고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이민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처럼 그들도 비록 같은 민족이지만 남한의 문화와 언어 등의 차이/차별 가운데 그들의 교회를 세우고 비록 많은 교회들이 어렵지만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교제하는 모습이 축복받은 자들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이나 밖에 세워진 신학교들을 통해 통일 후 북한의 문이 열릴 때 자기 북한인들을 위해 쓰임 받기를 위해 준비하는 귀한 젊은이들을 보며 하나님의 예비하심도 깨달았습니다. 또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에 나왔다가 인신매매단에 팔려 아무런 법적 지위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중국 농촌의 아내 겸 종으로 살아야 하는 “평강 공주”들의 이야기는 정말 마음이 아팠고 주의 자비와 긍휼로 그들이 복음 안에서 해방되고 축복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 중 한국에 온 자매님들이 끔찍한 고통을 이기고 신앙 가운데 밝게 생활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치유와 축복의 간증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외부적인 인간의 환경은 절망 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위대한 일을 이뤄나가심을 보았습니다. 마치 애굽에 팔려간 요셉의 거듭되는 절망적 나락에서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천하를 구원하고 야곱의 집안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기초를 마련하신 것같은 기적이 탈북자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때때로 남북이 분열된지 77년, 이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정권 집단인 김정은 체제를 하나님은 왜 아직도 허락하시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단기 선교 여행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가 복음으로 통일될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기다리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계의 한국인들이 믿음으로 소망을 잃지 않고 충성을 다할 때 주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남북이 하나가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오리라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3



튀르키예, 조지아, 아르메니아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글 | Daniel Lee

Our team had just returned from our mission trip to Istanbul, Batumi, and Yerevan. It was certainly a blessed trip, one that really opened my eyes, heart, and perspective to see how God blessed us and continues to bless us every step of our lives. Through every prayer, conversation, shared meal, dance performance, shared testimony, and hug, God powerfully works through us as His hands and feet to bring the gospel, joy, and peace.

Trainings

One aspect that I underestimated was the amount of training required to prepare for the mission itself. Four weeks of mission ministry wide training and nine weeks of mission specific training (four of those weeks overlapped). From the mission topic lectures, social and cultural presentations, QTs, prayers (including 새벽기도), and dance rehearsals, these training sessions were very intense, yet necessary.

What particularly stood out to me was the amount we dedicated to praying; I would estimate that we prayed around 50% of the time we spent together. As we learned during our training, "A missionary without prayer cannot be a missionary." We continuously prayed for the mission field, the ministry, for safety, for the local community, and co-workers. Additionally, the enlisting of prayer sponsors was crucial. There were certainly moments during the mission itself where we could not have continued without your prayers. Thank you.

Another useful aspect was simply spending time with the team. While I was 1 of 2 English Worship members, among a team of nine, I didn't realize how little the rest of the group knew each other. There were certainly pre-existing relationships between Pastor Hwang and Amy KSN with each team member, but within the team members themselves, it wasn't like a couple of close friends were going together. I think this aspect really helped us to learn to become like one, and learning to understand, tolerate, respect and love one another. It also revealed to me that it wasn't we (each team member) that decided to go, but God hand selected each one of us for this mission.

First Couple of Days

In the days leading up to the mission trip I was often asked, "Are you excited?" or "Are you nervous?" To be honest, I didn't really "feel" anything. Based on this reaction, I thought to myself, "Wow, I've come a long way spiritually. Not really being led by my emotions, but simply trying to be obedient to God."

Then came October 4, the day of our departure. As I greeted my wife farewell from my home, I started to feel some uneasiness. This continued as we did our final preparation work at church and as we rode to SFO. Ok...this must be just pre-travel jitters. However, the uneasiness continued after we arrived in Istanbul and through the first night. It wasn't until we gathered for our morning worship, QT and prayer on Day 2 (10/5) when I realized that I haven't fully arrived in Istanbul yet. A part of me was still back in San Jose, worried about my family, our home remodeling, my work, my community service obligations, etc. Fortunately, nothing can hide from God's light.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and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it." (John 1:5). Whatever was holding me back from going all-in during the mission, can no longer hide. When Jesus says that he would leave the 99 to find the 1, I always thought that it meant those that are lost. But He even comes for those that may be intentionally hiding. Through our worship, as we brought ourselves to God, God found me. It's "Go Time."

Field Evangelism in Istanbul

I've done field evangelism before, through Evangelism Explosion and even with my wife as we handed out care packages to homeless people. But doing field evangelism in Istanbul was different. Trying to evangelize in a nation that is 99% Muslim felt daunting. As we walked around the neighborhood, I could feel eyes and words of judgment upon our team. However, I was reminded that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Romans 8:31)? What were all those prayers for, asking God to soften the hearts of those we meet, to loosen the chains that Satan and Islam have over Turkey? Convincing was not our job. We were merely there as God's feet and hands and to simply serve as God's witnesses, not defense attorneys, to share the truth. All we had to do was stay connected with God to allow Him to lead us.

Once I was able to reframe my spirit, field evangelism was enjoyable. It was eye-opening and reassuring to realize that the people we met were generally polite and seemed open to our invitations. It was wonderful to see our teams in action, especially Sisters Iris and Ellie, whom I've had the privilege of serving with on all three field evangelism days. Seeing their smiles and genuine joy and interest as they connected with each individual, it was no wonder why people were so receptive to their approach. Light among the darkness. spiritual awakening.

Who wouldn't want to hear what they had to offer? Further, given the economic suffering in Turkey and the current backlash against, Islam, this land is ripe for a spiritual awakening.

Now it was easier to evangelize the first two days as the invite was for Korean Themed Events (Hallyu was very strong in Istanbul), but the locations for all our events were at the church. Now that was intentional. Even for the third day, which was the day of our revival and dance performances, the location was front and center in our invite. There were certain instances when upon sharing our invites, people would comment "it is at a church, is it dangerous?" Similar comments would appear in the comment section of the church's Instagram page. Teacher Joseph (Pastor of Kadikoy Protestant Church) informed us that this was called "filtering." We wanted to make sure that the people who came, knew they were coming to a church and knew that it was likely that they would be evangelized to. It wasn't a social club they were coming to, but a House of God.

The Events – Culture, Food, and Dance

To describe the events as successes would be an understatement. On Days 1 – 2, it was standing room only. Estimates had our guest count between 40 – 50 guests for each day. While we didn't share our testimony or the gospel on the first two days, these days were critical. As Pastor Joseph instructed us, doing mission work in a country like Turkey is a long game. For example, in the ten years prior, only ten new Christians emerged. As such, building relationships and trust are critical, and every moment serves as an opportunity to do just that. The following phrase constantly came to mind as we navigated through our mission, "People overestimate what they can do in a year, and underestimate what they can do in five years." While I didn't expect to participate in Billy Graham style crusade meetings, I certainly didn't realize how challenging it would be to evangelize in Turkey. However, I was encouraged in knowing that I am simply a tool in the process, perhaps I would be the planter of a seed, or be the one to water it, but at the end, the fruit that ripens would ultimately be for God's glory.

Day 3 was different. There was no sugar coating our invitations. That day was revival day. And the enemy's attacks would be at full force. I certainly felt uneasy that morning, which led me to pray more that day. After our morning meeting, Teacher Joseph reassured us that if we don't approach minors, everything we are doing and have done so far was legal. As such, we shouldn't be worried about being punished by the authorities. As Teacher Joseph shared this, I felt an immense amount of comfort, as I was reminded that we are simply sharing the truth, and again,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Romans 8:31). Now, the guest count was far less than what we experienced on Days 1 and 2. But there were a lot of familiar faces that showed up, people that we started to build relationships with. Our divine appointments.

Divine Appointment – Sabit Gokpinar

A general definition of a divine appointment is a meeting with another person that God has specifically and unmistakably arranged. "The steps of a good man are ordered by the Lord" (Psalms 37:23). That means we don't get to choose who our divine appointments will be with. And this certainly was the case.

Sabit Gokpinar is an interesting fellow. Very friendly. However, many of my teammates felt that he was too friendly, maybe even creepy. This even raised the guard of our team brothers, who felt that it was necessary to protect our sisters, as it was one of our directives when we had undergone training. So why does he have to be my divine appointment?!? Can't it be someone else? Can't it be someone that is popular with the team? We certainly made it as difficult as possible for him. There was one evening when he walked with us all the way to the venue of our wrap up dinner, only to be not invited at the door of the restaurant. Or being awkwardly shut down for a hug and being reminded that in America, women get to choose who and when they hug someone.

Yet, Sabit came to all three days of events. He even took a chance and took the ferry at 8 in the morning to join in our Church Picnic service at a remote island. When he heard I was under the weather on the last night of our trip, he came to our hotel at 11:00 PM with lemons and medicine: again, I was asleep and "stood him up" although this time he was a victim of circumstance and miscommunication (poor guy). Despite all the reasons to be salty or not even show up, he still did, being his friendly self and always looking for ways to help, like helping cook at the BBQ or carrying the grills back to the shop. I realized I have a lot to learn from Sabit. That we don't get to judge whom God wants us to love. After I shared my testimony and the gospel, Sabit thanked me, yet was still unwilling to pray the sinner's prayer. Yet, he still came to be a part of our family, leaving the door open for God to plant His seed. I continue to stay in touch with him and hope that I get to see him again, to build our relationship and to have another opportunity to share the gospel.

Armenians

One of the most memorable things about the trip was meeting our Armenian pastors, Pastors Garen and Arshok, who led churches in Istanbul and Batumi, respectively. To understand why this would be memorable would require an understanding of the Armenian Genocide. (https://en.wikipedia.org/wiki/Armenian_genocide). Visiting the Armenian Genocide Memorial was incredible. While I did hear of the Armenian Genocide, the scope and scale of the atrocities were nothing I had even imagined. It was a heart softening experience. While we were already praying for these people, getting a glimpse of their history really brought a new perspective and new dimension to my prayers personally.

"But I tell you, love your enemies and pray for those who persecute you, that you may be children of your Father in heaven" (Matthew 5:44-45). How truly remarkable these two men truly are to be able to put aside personal pain and grief and be willing to preach the gospel to those that may not necessarily want to hear it or even be opposed to it. Yet, they remain faithful to God's calling. Arshok went as far as praying for a Turkey family to work side by side with his family. What a miracle that would be! A Turk and Armenian working side by side to preach the gospel. Also, what a testimony to show the world that it is by God's power we can do things, not by our own will and might.

Lessons Learned

I wanted to use this section to document some of the lessons I learned from this trip.

Always stay plugged into God for His power through continuous prayer. Some of the things God asks us to do (slow to speak/anger) is impossible by our own will. But we obtain the ability and the power through God. Like a blender, we won't work until we are plugged in.

Be aligned with God and allow Him to guide your steps. Whether it was the mission itself, our team members, or our divine appointments (Sabit), God truly showed me that while I may think that I am in control, it is God that places people, challenges, and situations in my life. Instead of dwelling on the difficulties or inconveniences that come with certain situations, remember to ask what purpose God has for this season.

Stay spiritually sensitive and guard my heart, ESPECIALLY back home. One observation I made during the trip was how faithful and bold our missionaries were in enemy territory. It made me feel ashamed as living in California and Silicon Valley, we have every advantage to be just as faithful and bold. However, I realized that the spiritual warfare we face in Silicon Valley is just as severe, as we also live in a society that rejects us and soft persecutes us for believing in the Truth. Sometimes it is simply easy to blend in and not ruffle feathers. I fear for my children and their relationship with God. Tim Stone Abi shared that several of his pastor/missionary friends have lost their children to secularism, despite their continuous prayers. How then can someone like me, with a mustard seed size faith compared to these men, be able to out pray and save my children. But I realized that I shouldn't compare myself to these men and should simply stay faithful and diligent. I need to be better as the spiritual leader of my household. I am committing to do daily QT with my wife (now that we are on the same program). Also I am committing to do daily family worship with my family (although haven't been able to implement yet due to COVID). "If you want to go fast, go alone. If you want to go far, go together." No matter how far I personally go in my walk with Christ, I need to remember to bring my family along.

Timeline

Date	Description
August 6 - October 1	Mission Training QT, prayers, cultural presentations, dance rehearsals
October 4	Depart SFO
October 5	Arrive in IST and orientation with Teacher Joseph
October 6	Morning worship, QT and prayer, field invitation handouts, Korean Culture Night (singing, wedding presentation, drums, games, 한복)
October 7	Morning worship, QT and prayer, field invitation handouts, Korean Food Night (김밥, 떡볶이,잡채,김치 볶음밥)
October 8	Morning worship, QT and prayer, Evangelism handouts, Revival Night mime, dance, Noah's testimony, Pastor Hwang's message
October 9	Kadikoy Protestant Church Picnic at Heybeliada, including Mime dance, games
October 10	Morning worship, QT and prayer, free time with prospects (visited Pastor Orohan, Madeline, and Brother Timoti), farewell dinner with Kadikoy Protestant Church
October 11	Travel to Batumi, Mime performance at Children Center, visit Mission Center Building, Teachers' Orientation at Arshok's Church, Dinner at Karem's
October 12	Morning worship, QT and prayer, bus ride to Tbilisi, final recap in Pastor Hwang's room
October 13	Bus ride to Yerevan, visit Armenian Genocide Memorial, Khor Virap (St. Gregory the Illuminator imprisoned), best Armenian kebabs for dinner
October 14	Travel to SAW (worst passport control), tour with Teachers Joseph/Sam/기쁨, free day (just rested as I was sick), farewell dinner 2 (best calamari)
October 15	Return back to California: tested positive for COVID



튀르키예, 조지아, 아르메니아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Long term Obedience in One Direction

글 | Serena Yoo

I'm in a very new season in my life as a recent college graduate, and I didn't expect myself to be struggling this much. Especially in my gap year(s) while other peers have moved onto the next stages in their lives or already started their medical paths, I momentarily felt stuck back home. I had just moved out of Berkeley, postponed my MCAT exam again, and had no job or substantial clinical experience to even consider a medical school application. I didn't have a community of brothers and sisters, and I was even considering looking for churches to attend in the Bay Area. The only thing I knew was that I had the training for this Turkey mission trip, which I had signed up for in June, started on the Saturday I moved back home. However, I greatly experienced the Lord's favor in this period. Not saying that going on missions will lead to answered prayer requests and prosperity. But while literally every aspect of my life was uncertain, I gave my very small and weak 'yes'. While I thought that I would have to be the one to make my own plans, I realize, in hindsight, that truly His hand directs my entire steps.

One immediate point I noticed was how resistant Turkey was to the Gospel compared to other countries I've been to for missions (Mexico, Honduras). As Islam is the predominant religion, there is only a small population of Christians and a smaller number of Bible-believing Christians who meet together to worship. For the first 5 days, we were with Missionary Jinri in Kadiky, Turkey. On the 1st and 2nd day, we held Korean culture camps at Missionary Jinri's church, passing out invitations throughout the city. And strategically, the 3rd and 4th days were planned to be intentional and direct. Our team performed a Gospel-themed skit and a body worship dance to a song explicitly about the Gospel, one of our brothers shared his testimony, and our Korean young adult pastor preached the Gospel. We were unsure if people would even come the first two days, let alone the 3rd day and 4th day, which was a Sun-

day church service. But in faith, we went out believing that God would bring those He wanted to bring. Over 30 people came for the first 2 days and over 10 people came back to the church service on the 4th day. As the Gospel was preached, we pray that the seeds would have landed on good soil and the Lord bring them all to fruition in His mercy. In the second half of the trip, we visited Missionary Tim and Sarah Stone in Batumi, Georgia, and visited the country of Armenia. We witnessed how the Lord is using the Stones to disciple and raise up Turkish and Armenian Christians.

While spending time with the two missionary families, I saw steadfastness in and faithfulness to God. It reminded me of a phrase I had heard 2 years ago -- 'long term obedience in one direction'. That is what the Christian faith needs to be and what I had begun to fail at. While reading 2 Samuel with the team on this trip and worshipping together, God exposed the hypocrisy in my life. Like the wise woman who puts on mourning clothes to approach and fool David in 2 Samuel 14, I have been doing the same before the Lord. Apologizing empty words while not truly repenting and turning away from my sins and giving lip service on Sundays instead of worshipping in spirit and in truth. I have come back having seen His glory and how He is building His Church in the Middle East. Each country has its own strongholds; in Turkey it is the religion of Islam. And I was very thankful how I had the freedom to worship God in America. However while thinking of America while on the flight back, there are ideological strongholds that are turning us away from a Biblical worldview. And as a follower of Christ, I need to remain sober minded and alert in these last days, regardless of where I am.



튀르키예, 조지아, 아르메니아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사랑으로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된 선교 여행

글 | 김일영

제 인생의 모토는 후회하지 말자입니다. 사실 어떤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하든지 안 하든지 양쪽 선택에 다 후회가 있을 수 있기에 저는 후회할 거라면 해보고 후회하겠다는 모토가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꼭 하나님께서 저의 이런 모토를 사역의 자리를 섬길 때에 상기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란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리도록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자리에 한 번쯤 늘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생각만 하고 지내다가 어느 날 문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애쓰다 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이번 튀르키예 단기 선교 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 주변에서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현지인이 아닌 함께 가는 팀원으로 인해 시험에 들고 힘이 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사실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내가 시험에 드는 것만이 아니라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어서였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런 걱정들을 내려놓고 선교 신청을 하고 훈련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훈련부터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주중에 일하다 주말에는 하루종일 교회에 있어야 하는 것이 육체적으로도 힘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정착 선교 가기 전에 힘 빠져서 못 갈 수도 있겠구나-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찌저찌 선교 훈련을 마치고, 10월 4일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튀르키예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꽤나 달랐습니다. 카디코이라는 대학이 같은 곳이어서 젊은 청년들이 많아서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히잡만 쓰고 다니는 것을 생각했는데 다들 굉장히 패셔너블했습니다. 유럽에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이틀 동안 Korean culture event 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밖에 나가서 길을 다니며 전단지들을 나눠주며 젊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한국말을 하시는 튀르키예 분들도 계셨습니다. 한국을 좋아하는 튀르키예 분들이 많아서 제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초청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함께 공기놀이도 하고, 김밥을 말기도 하면서 많은 튀르키예 분들을 만나고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3일째 초청의 날에는 저희 팀이 튀르키예에 간 이유, 복음에 대해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날이 저에게는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을 다 느꼈던 날이었습니다. 두려움, 압박감, 불편함, 긴장

감, 무거운 마음, 거절감, 우울, 슬픔, 놀라움, 행복, 감격, 기쁨, 평안함, 감사, 은혜. 첫째, 둘째 날에는 한국인으로서 튀르키예 분들을 초청하는 날이었다면, 세번째 날에는 크리스천으로서 튀르키예 분들을 초청해야 했고, 사실 두려웠습니다.

한국인이라고 반겨주는 것보다는 크리스천이어서 거절당해야 하는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시작하는 아침부터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한데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마음이 좋지 않았고 도살장 끌러가는 소같은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진 마음으로 세 명과 짝이 되어 초청장을 나눠주러 다녔습니다. 다니다가 해안가 쪽에 있던 두 자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는 한국인데 캘리포니아에서 왔고 크리스천이다, 워십댄스, 작은 연극 같은 것을 하고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것인데 오늘 오후 4시에 시작하니 관심이 있다면 와 주기 바란다 전달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 자매가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관심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른 자매가 남자친구를 픽업하러 공항에 4시에 가야해서 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쉽기는 했지만 일단 초청장은 가지고 있으라고 하고 드렸습니다.

초청장을 돌리고 교회로 돌아가는 순간까지도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착잡한 마음으로 워십댄스와 마임 연습을 하는데 워십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스스로 찬양을 드리면서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 표정도 안 좋고 그게 또 전달이 돼서 연습하는 동안 한소리 듣고, 근데 그거에 또 마음이 안 좋아서 표정이 더더욱 굳어지는 내 자신에 대해 '아 내가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되나, 감정을 이렇게 다스리기 힘들고 짜증 덩어리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내가 여기서 뭘 하겠나 하는 생각에 저 스스로에게 화도 나고 우울했습니다. 사람 보기도 싫고.. 이런 마음으로 억지로 꾸역꾸역 해야 하는 하니까 사람들이 왔을 때 했습니다.

그때도 너무 그냥 다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5시 반 정도였을까요? 야까 해안가 쪽에서 만난 못 온다고 한 자매 2 분이 오신 겁니다. 이 분들이 왔다는 자체에 굳어있던 제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서 어떻게 왔냐니 남자친구 비행기가 연착되어서 잠시 시간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친구들이 늦게 와서 워십 댄스와 마임을 보지 못했습니다.

충동적인 부분이 있는 저는 갑자기 꼭 이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생각을 정제하고 말하기도 전에 “너네를 위해 다시 한 번 할까?” 라고 말이 훅 튀어 나와 나와버렸습니다. 정말 감사했던 것은 제 옆에 지은 자매와 지호 자매가 있었는데, 두 자매가 모두 격하게 동의를 해주셨고 덕분에 사전 계획에 없었지만 다시 한 번 워십 댄스와 마임을 늦게 와서 보지 못한 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이 때 제가 다시 한 번 녹아내렸던 것은 사실 제가 팀원들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거의 통보식으로 한 번 더 한다고 해 버렸는데 이 때에 팀원들이 충분히 원래 없던 계획 아니냐고 하면서 불평할 수도 있었고 그로 인해 팀 분위기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모두 바로 함께 다시 하려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웅졸함으로 가득 차 있던 저의 밑바닥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섬기는 모습, 함께하는 팀원들 모습에서 사랑이 보이면서 그렇게 또 아름답고 귀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때 하루 온종일 지옥 같았던 제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감격으로 찬양드리며 워십댄스를 하는데 그게 또 그렇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마임을 하는데도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그리고 나서 그 자매 두 분에게 복음에 대해 짧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분들이 이날 영접하지는 않으셨지만 한 자매가 저에게 네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좋고 “It’s very contagious.” 하라며 이야기 해 줘서 고맙다고 해주셨습니다. 그 분들의 때에 맞는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두 자매들이 떠난 후 벅차오르는 감사함, 기쁨에 기쁨의 눈물이 흐르는데 그걸 또 저처럼 눈물 많은 울보 자매 두 명이 보고 왜 우냐며 위로해 주다가 같이 짧게 5-10분 정도 나눔의 시간을 가졌는데, 또 다 같이 우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행복, 정말 참된 행복을 맛봄으로 남은 시간을 기쁨으로 감사히 보낼 수 있었고 저에게는 이날이 이번 선교에서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함께 가는 팀원들로 인해 선교가 힘들 것이라던 제 우려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가는 팀원들로 인해 저에게 은혜를 다시 한 번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튀르키예 분들을 위해 갔지만 오히려 저를 만져 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맛 보게 되어 행복했습니다.

선교,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루 사이에 지옥과 천국을 왔다갔다 하였고 시험에 드는 순간들이 매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는지를 경험하는 그 기쁨과 행복이, 힘들었던 모든 것을 덮어버릴 정도로 컸습니다. 저와 저희 팀을 위해 기도로 또 후원금으로 어려모로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고 첫 선교 여행 무사히 마치게 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튀르키예, 조지아, 아르메니아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글 | 신재희

How mercy it is. 11박 12일, 터키-이스탄불/카디쿄이, 조지아-바투미, 아르메니아-예레반의 선교여행이 온 해로, 주님의 사랑으로 마침에 아버지께 영광 돌려요. 아빠는 저희가 뭐가 그리 이쁘시기에 곳곳에 당신의 은혜를 숨겨놓으셨을까요? 다시 생각해도 믿기지 않는 순간들. 그러나 나에게 보여주셔야만 했던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했던 두가지 일을 떠올려봐요.

첫째로는 제 Divine Appointment 와의 만남. 터키로 가기 전, 두 달 동안 타이트하게 선교준비를 하면서 주님께서 만나게 해 주실 Divine Appointment 를 기대하며 기도해 왔어요. 주님께서 어떤 영혼을 만나게 해주실까.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는 워낙 낮도 잘 안가리고 성격도 털털하니깐, 사람들은 쉽게 만날 수 있을것이라며 자신만만해 했어요. 그러나 생각보다 더 강행군이었던 사역과, 시차적응할 여유도 없었던 스케줄에 제 멘탈은 바닥이 나버렸고, 한국 문화캠프를 했던 6일 목요일, 7일 금요일에 교회로 오시는 터키분들을 기쁨으로 맞이 할 수가 없었어요. 저를 제외한 다른 팀원들은 교회로 오신 분들과 웃으며 즐겁게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 나는 뭐하고 있나 자책감도 들었어요.

그렇게 행사를 마친 금요일 밤 10시, Recap 모임 중에 팀원들이 하나 둘씩 Divine Appointment 를 찾은 것 같다는 간증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날 밤, 아이같이 주님께 졸랐어요. '제가 뒤에서 조용히 Backup 을 해야하는 역할 이라면, 그것 또한 감사해요. 팀을 위해 그런 사람도 분명히 필요할테니까요. 하지만 아빠, 저는 이 선교를 위해 12시간을 날아왔고, 제 첫 선교이며, 이 날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왔어요. 다른 지체들에게 주신 Divine Appointment, 제발 제게도 주시면 안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8일 토요일은 대망의 전도축제. 그 날은 정말 우리 선교 팀원들이 준비한 마임 공연, 워십 댄스를 보여주며 복음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팀원들과 QT Sharing, 말씀과 찬양으로 무장하려는데, 정말이지 그게 잘 안되었어요. 팀원들도 마음이 초조해지고 마음이 굳어졌어요.

노방전도를 하려고 길거리에 나가기 직전에, 팀장님의 지휘 아래 저희는 모여서 또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는 팀장님과 함께 짝을 이루어 노방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팀장님과 같이 노방전도 팀이 됐을 때 내심 안심하고 팀장님 뒷꿈무늬만 쫓아다니면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어쩔 그 생각을 읽으셨는지, 그 생각한지 1분도 안돼서 팀장님은 제게 그렇게 뒤에 그림자처럼 있지말고 뭐라도 좀 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말투는 굉장히 부드러웠지만, 조금 만 더 미적대었다간 팀장님의 불호령이 떨어질게 상상이 가니, 그제야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기억 나요, 카다쿄이 교회 앞에 있던 5층짜리 스타벅스 건물. 팀장님과 3층, 4층, 그리고 마지막 5층까지 올라갔는데 말을 걸 수 있는 기회가 보이지 않았어요. 걸음을 돌려 다시 내려가려고 하는 순간, 한 청년에게는 그래도 말을 걸어야겠다 싶어, 에라 모르겠다 용기내어 터키 청년에게 말을 걸었어요. 제가 터키말도 제대로 못해서 영어 할 줄 아냐고 물어봤더니 돌아오는 또렷한 한국말, '한국인이세요?'. 누가봐도 터키 현지인 입에서 나오는 한국 말에 놀라서 어버버하고 있는 저와 팀장님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연이어 한국말로 자기 한국이름은 성준이고, 한국회사에서 6년정도 일해서 한국말을 할 줄 안다, 한국에도 두 번 놀러갔었다며 자기 소개를 했어요. 저는 한국어로 소통을 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제 소개를 간단히 하고 담소를 조금 나누다가 조심스레 전도축제 얘기를 꺼냈어요. 성준이는 놀라면서, 여기에 교회가 있었냐며, 전도축제에 꼭 가겠노라고

약속했어요. 너무 기뻐요. 영어 하는 사람도 찾기 어려운데, 한국말을 능숙하게 잘하는 터키청년이 전도축제에 오겠다고 하다니! 약속을 받아내고 뒤돌아가는 내내 마음이 감사로 가득했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어제의 나의 간절 한 기도를 들으셨구나! 나의 어린 아이같은 투정도 들어주셨구나!

성준이와의 극적인 만남에 연이어, 주님께서는 바로 두번 째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팀장님과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신기한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홍대거리 같은 카다교이 대학가 거리에 사람들이 가득차 있었는데, 그 모습이 찰칵 사진 찍히듯이 눈에 담겼어요. 사진 속 사람들이 슬로우 모션으로 아주 천천히 느리게 움직이면서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이 확대되어 보였고, 그 순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이 영 혼들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구나. 아흔 아홉 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잠시나마 엿보고 나니, 제 안에서 뜨거운 것이 일어났습니다. 가만 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나는 당장 주님을 전해야하는 구나.

10여분 전에만 하더라도 쭈뼛쭈뼛 성준이한테 다가갔던 제 모습은 간데 없고, 눈만 마주쳤다면 덜컥 메르하바! 터키어로 인사하며 전도축제 전 단지를 주고, 초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꼭 왔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춤도 추고 볼거리도 많을 것 이고 간식도 있다고. 마지막으로는 터키어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전했어요. 거절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전혀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쉬웠고, 언젠간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꼭 복음을 듣기를 기도하는 마음이었어요.

성준이는 그 날 전도축제에 무사히 잘 왔고, 저희의 공연을 보고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저와 권사님을 붙잡고 얘기했어요, 오늘 공연을 통해서 위로받았다고. 꼭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 그것을 듣는 저와 권사님은 얼마나 기뻐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성준이를 참 사랑하는 구나, 그래서 우리를 산호세에서 여 기까지 부르시고 위로하게하시려고 오늘을 준비하셨구나. 성준이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직접 목격하고 나니, 그 사랑이 얼마나 무서우리만큼 크고 위대한지 체감할 수 있었어요. 그 성준이는 아쉽게도 일때문에 이스 탄불에서 Cyprus로 곧 떠나게되지만, 또 놀라운 건 그 사이에 성준이가 동생을 전도했다는거예요.

팀장님께서 늘 강조하신게, 우리의 씨앗이 어디까지 갈 지 모른다. 터키로 단기선교를 떠나신 성도님께서 기차안에서 낫 선 터키 사람에게 무릎 꿇고 신약성경을 건내었던 그 씨앗, 결국 그 터키 분은 터키 내에 유명한 evangelist 가 되었다는 이야기. 성준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준이가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길 기대하고 기도해요.

저의 첫 단기선교는 상상 이상의 축복이 있었어요. 이 두가지 일 말고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 하나 하나 다 은혜였어요. 오히려 너무 많은 은혜를 쏟아부어주시는데, 그걸 소화시킬 역량이 안돼서 답답했어요. 하나 하나 은혜를 곱씹고 음미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와르르 쏟아부어주시기에 씹지 못하고 삼켜버린 은혜도 있었어요.

더 훈련이 되어서 오면, 아마 다음엔 더 제대로 음미할 수 있겠죠? 그 날을 기대하며, 건강하게 선교를 잘 다녀오게 해주신 주님 감사하고 또 사랑해요.





튀르키예, 조지아, 아르메니아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글 | 김애경

오랫만에 형성된 뉴비전 청년팀 그리고 English Worship Team 의 합류로 시작부터 정말 감사와 기대감이 넘쳤다. 얼마나 기다리고 기도하던 일이 이제 KM 과 EW 가 함께 튀르키예와 바투미 아르메니아까지 가게 된 것이다. 사실 이번 선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나 하는 물음표를 가지고 시작했으나 12일의 긴 여정 끝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우리를 찾으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너~무 원하신다는 큰 느낌표로 끝났다! 일체 은혜!!

청년들의 훈련 과정 동안 너무나 큰 기쁨과 팀의 연합을 경험하게 하셔서 늘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심도 큰 은혜였다. 튀르키예의 명동같은 카디교이에 개신교회를 시작하시고 우리 교회의 전략 선교사이신 김진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 그곳에서 그들의 꾸준한 헌신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히 열매를 맺어가시는지를 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누며 일한 그 며칠은 작은 기적의 연속이었다.

카디교이는 7개의 대학이 있는 한국의 대학로와 같은 곳이다 첫 며칠은 한국캠프 전단지들 들고 이곳의 젊은이들을 공략하며 초대하고 친구 삼는 일에 집중했다. 첫날 커피숍에서 만난 치뎀, 굉장히 발랄하고 붙임성있는 친구인데 그 자리에서 친구들을 초청하며 함께 올 것을 약속했다 좀 늦긴했지만 치뎀은 남자친구와 함께 나타났고 이를째도 왔고 삼일째는 전도 집회라고 했는데도 심지어 결혼한 친구가족까지 데리고 나타났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적인 것이다

치뎀은 굉장히 FRIENDLY 하고 친절하지만 무척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대표적 현실 세속주의 청년. 종교엔 별 관심 없고 죽으면 그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청년이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하나님은 지쳐서 포기하고 싶은 나에게 계속 끝까지 복음을 설명하게 하셨다. 그런데 함께 온 남자친구가 오히려 복음에 많이 귀기울이며 생각하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슬그머니 대화에 귀기울이는 barak이라는 청년! 이것도 기적이었다. 이틀을 한국 캠프하며 친구를 만들고 삼일째는 정면 돌파였다. "초청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에 와 보시겠어요?" 다소 생소한 전단지들 들고 떨림으로 거리를 누비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간절히 찾게 하심으로 잃어버린 한마리 양을 찾아 99마리를 남겨두고 나서는 목자의 심정도 알게 하셨다.

또 하나의 기적!디아르바르크라는 동부 지역에서 온 BARIS 라는 20대 청년은 집으로 돌아가는 날짜까지 변경하며 우리와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자기가 사는 동네에 교회가 있는데 돌아가면 나가겠다고 하고 그 약속을 지켰다. 더 감사한 것은 카디교이 교회를 함께 동역하시는 고 선생님 사모님이 디아르바르크 교회 사모님을 개인적으로

아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 연결이 가능했던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인가?

이스탄불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조지아 바투미로 떠났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바투미 선교 센터가 4월의 PLAN에서 6개월후인 10월에는 건물을 사고 내부 공사를 시작했고 그 곳을 직접보고 둘러보며 앞으로 이곳에서 일어날 놀라운 기적들을 미리 내다보며 기도하게 하셨다. 한 청년 자매가 자신의 후원자들이 보낸 헌금을 선교 떠나기 전에 몽 선교센터를 위해 써달라고 헌금한 것을 전해 드리며 또 한 번의 기적을 체험했다.

두 달 여간 연습하고 준비한 댄스와 마임을 거리에서 하며 전도하려고 계획이 비가 오는 관계로 취소되어 의기소침 하였는데 뜻하지 않게 오스트리아 선교사님이 하는 쉼터에 가게 되어서 어린이와 엄마들이 잠깐 쉬어가는 곳에서 비로 젖은 바닥이었지만 열악한 환경을 마다않고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여 우리팀은 공연하였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셨다. 할렐루야!

아르메니아의 청년들이 원수의 나라인 튀르키예를 품고 기도하며 선교사들을 내보내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4월에 바투미 선교를 통해 듣고 그곳의 교회와 청년들을 만나러 그 곳을 향했으나 여러가지로 차질이 생겨 교회 방문은 하지 못했지만 그 곳의 뿌리 깊은 기독교 역사와 박해 그리고 대학살 등을 알게 되었고 그 언덕의 수도원에서 손을 잡고 아르메니아 청년사역자들과 기도하게 하시며 나의 이웃이 누구이며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 ! 또 하나의 기적!

이제 내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들을 상기하며 내 이웃은 누구이며 나는 어떻게 내 이웃을 내몸과 같이 사랑해야하는지 고민한다. 왜냐면 그 것이 주의 뜻이 주의 나라가 이땅에 이루어지는 방법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매일의 기적이기 때문에.

일체 은혜, 일체 감사!!



튀르키예, 조지아, 아르메니아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그리웠던 첫사랑을 찾다

글 | 김지은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 것일까?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최근에서야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갔고, 그의 사랑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고 놀랍다는 것과 그의 다함 없는 사랑만이 나의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언제부턴가 내가 그 진리를 충분히 즐기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졌다. 어둠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한 기쁨이 시간이 지날수록 무덤덤해진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광야 길에 만났던 하나님의 첫사랑이 그리웠다.

마침 디모데 공동체에서 단기선교를 갈 계획이라는 소식이 들렸다. 어디가 되었든 바로 가야지 라는 순수한 생각으로 결정하였다. 두 달간 매주 토요일 단기선교 모임을 하면서 초반에는 모든 것이 부담으로 느껴졌다. ‘나처럼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괜히 선교팀원들에게 피해만 끼치는 것이 아닐까.’ 라고 후회할 뻔 하기도 했지만, 선교 준비를 하는 시간이 더해질수록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체험할 수 있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욱 깊이 경험했고, 그 크신 사랑을 이 단기선교를 통해 나뿐 아니라 튀르키예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게 되었다.

튀르키예에서 여러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면서 다른 팀원들처럼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에 스스로 실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을 더 바라보게 하셨다. 선교를 가기 전에 했던 은사 테스트에서 나온 내 은사 중 ‘도움과 환대’ 에 대하여 깊은 생각을 해 보았다. 내가 먼저 나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담이 될 때 억지로 나서서 하려기보다는 팀원과 하나가 되어 서포트를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리더를 하는 사람 옆에서 그의 말을 거들며 도움을 주었다. 하루는 노방전도를 통해 만난 두 여인이 교회에 왔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대해서 단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아쉽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생각과 그들의 구원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지아와 아르메니아에서는 마음 아픈 순간들이 많았다. 당장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만큼 허물어져 있는 건물들, 여전히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고통 받는 refugee 들을 보며 마음이 텅텅하고 불편했다. 하나님께 물었다. ‘이런 걸 저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런 모습들을 보며 그 땅들을 말 없이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 그 후로 그 곳에 있는 시간 내내 주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다.

튀르키예, 조지아, 그리고 아르메니아에서 10일간의 짧은 선교 여행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다. 먼저, 하나님의 일은 내가 시간이 될 때 하는 것이 아닌 무조건 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선교는 생활이다’라는 김애경 권사님의 말씀처럼, 내 일상에 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일을 못한다는 것은 핑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다른 영혼을 향한 사랑을 품게 하셨다. 평소 내 자신만을 기도했던 나에게 다른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셨다. 마지막으로, 내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주시고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갇아먹고 있는 나를 내려놓게 하셨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에 끊임없이 의심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다. 이번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하고자 했던 영혼은 선교지에 있는 선교 대상자들 뿐 아니라 나이기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그리웠던 첫사랑만큼, 어쩌면 그 보다도 더 큰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안디옥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글 | 김유미

멜하바! 안녕하세요

“트루키에 하타이 안타키야”.

이번 2022년 10월 14일부터 22일까지 다녀온 단기 선교지의 안디옥 아가페 교회가 있는 곳의 지명은 매우 낯설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주일이 되어 터키 현지인 예배와 아랍어 예배, 어린이 소그룹, 시리아 난민과의 만남 등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예배 시간마다 우리 팀은 헌금송으로 준비했던 터키어 찬양들, 신나는 율동의 워십댄스와 아랍어 찬양을 울려드렸고, 어린 아이들에게 난민 패키지 등등을 나눠주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성도들이라 다소 어색함도 있었지만 한 분 예수님만을 구주로 모신 우리들이라 그런지 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점점 화목해짐을 느꼈습니다. 성령님이 부여하시는 기쁨으로 자유롭게 맘껏 주님을 찬양드리는데 우리 선교팀의 모습이 그곳 현지인들에겐 매우 새로웠고 본이 되었으며 소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터키에서는 단조 타령같은 애잔 소리가 하루에 5번 씩 이슬람의 각 마을에 구역마다 세워진 이슬람 회당의 스피커를 타고 온 나라의 공중과 하늘에 빈틈없이 가득 울려 퍼집니다. 이 애잔 소리를 저 역시 터키 체류한 내내 새벽부터 듣다보니 이슬람에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막연히 책으로 배우던 것을 실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안디옥에서 조상 대대로 이슬람이었으나 6년 전 회심하여 크리스찬이 된 아가페 교회의 한 성도인 “트루곳”씨의 가정을 심방하였습니다. 터키에서는 일가친척이 함께 모여 살고 생계도 서로 밀접하게 돕고 지냅니다. 우리가 방문한 “트루곳”씨의 집 역시 아랫층엔 부모님이, 3층엔 형님 가족이 살고있었고, 나중에 또 여유가 생기면 4층도 올려 지어서 다른 친척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일용직을 하는 트루곳씨의 집이 있는 이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엔 난간을 만들 돈이 없어 손잡이 없는 층계를 조심스레 올라가야 했습니다. 트루곳 씨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인 6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아침마다 눈을 뜰 때 오늘은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하며 매우 불안한 맘으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니 마음에 근심이 없어지고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살 수 있게 되었으며, 여전히 생계가 막막하지만 주신 것도 감사, 주시지 않는 것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내인 “세미레”씨는 매우 마음이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부가 크리스찬이 되어 성도의 삶을 살다 아가페 교회에서 현지인 성도의 자립을 돕는 프로젝트의 일환인 돌을 직접 깎아 만드는 모자이크 작업을 하며 생계에 도움이 되어 자부심도 생겼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가정에서 믿음으로 기른 큰 딸 “쿠체”가 열심히 공부하여 앙카라대학 한국어과에 들어

가게 되었는데, 온 가족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주님께 은혜를 입어 복된 삶을 살다보니 그동안 무시하며 도움도 주지 않았던 트루곳씨의 부모 형제와 지인들이 그 변한 모습과 이유가 궁금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 배우고 알고 싶어 물어보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 전도의 길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응접실 소파에 앉아 나누다가 바로 전날이 트루곳씨의 생일이라는 것도 알게 되어 다 함께 즉석에서 생일축하 노래를 불러드렸고, 대접 받은 다과 가운데 석류 엑기스를 맛보다 바닥에 몇 방울 흘러게 되어 휴지로 닦았는데, 끈적임을 없애기 위해 티슈에 묻혀 닦아드리다가, 어느새 저의 맘에도 친숙함이 스며들어 제가 닦은 바닥으로 자연스럽게 내려 앉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이유 하나로 가문과 사회와 나라에서 관계단절을 당한 고통과 아픔이 있는 가정이라 그런지 먼 곳에서 잠시 단기 선교로 방문했는데도 우리 선교팀으로부터 이루어 말할 수 없는 주님의 큰 격려와 힘을 얻었고, 예수님을 믿어 형제 자매가 된 공동체가 온 세상에 있다는 것으로 힘과 감사가 넘치게 된 것 같습니다. 저역시 이번 심방으로 인해 터키 현지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맘과 돕고 싶고 기도해주고픈 마음이 우러나오게 되었는데,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주님은 제게 이번 단기 선교 동안 만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다음의 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뮤지엄 로비에서 만난 이름 모르는 여인, 이 여인은 과부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서로 셀폰이 작동 안되어 구글 번역기를 돌릴 수 없어서 깊은 이야기도, 복음도 나눌 수 없었으나 대화를 하기 위해 주고 받은 호흡과 음성, 서로 나눈 눈빛, 와이파이가 되는 곳을 찾아 함께 걸었던 발걸음을 기억하며, 주님이 이 여인의 영혼구원하여 주시고 외로움 위로해 주시길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리아 난민 캠프에 갔을 때 만난 “노릇스”라는 어린 여자 아이입니다. 저의 시계와 반지와 머리끈과 전도큐브를 노리며 계속 달라고 했으나 개인적으로 선물을 주면 우리가 떠난 후에 서로 때리고 싸우며 다툰다고 하여서 미리 만들어 준비한 패키지와 간식인 빵과 음료 외에는 어느 것도 따로 줄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끊임없이 물질을 갈구하는 이 아이에게 사랑의 허그를 주기로 맘 먹고 이 아이를 한 10 번쯤 I love you 라고 연속하여 속삭이며 안아주었습니다. 처음 안아줄 땐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갔으나 거듭 안아줄 수록 아이는 아이인지라 점점 부드러운 눈빛, 팔과 다리도 풀어지고 표정도 밝아져 어느새 그 안의 이모셔널 탱크에 제가 전한 예수님 사랑이 가득 채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주님의 귀한 딸로 성장하길 기도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세번째로는 아가페 교회 주일 예배 어린이반에서 말씀 전할 때 만난 “타냐” 라는 아이입니다. 내년 1월 25일에 침례를 받기로 하였다는 여자 아이인데 터키어 독일어 영어 한국어가 유창하며 총명하고 밝은 청소년이었습니다. 저를 좋아하고 언니라 부르며 따르기에 이 아이와 계속 카톡을 주고 받고 말씀도 올려주고 기도 제목도 나누며 연락하고 기도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품습니다. 단기 선교를 떠나기 전에 선교 준비교육을 리드하시던 김애경 단기선교팀장님께서, 선교 다녀온 후 터키를 위한 기도회를 갖으면 좋다고 하셨습니다. 단기 선교 준비하느라 바쁘게 애쓰고 선교의 장에서 잘 섬기고 복음 전하고 돌아오면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한 것 아닐까? 계속 이어서 기도까지 해주어야 하는가 하는 맘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터키에 다녀오고 보니 그 땅에서 만나고 보았고 모든 6천 만명 터키 국민이 구원받아야 함을 제가 원하며 영혼 구원의 소망의 맘을 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주님이 만나게 하신 위의 언급한 세 사람도 마음에 또한 각별히 품게 하시니 저는 그들의 기도해주는 어머니가 된 셈입니다. 그러기에 제게 기도의 힘을 더해주고 꾸준히 달리로 록 정한 시간을 만들어주는 터키를 위한 함께 하는 기도 공동체가 이제는 오히려 반갑고 고맙게 느껴집니다.

선교는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예배가 있지 않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 직접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터키 안디옥 선교 여행으로 이 모든 것을 허락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유지엄에서 만난 여인



시리아 난민 여아 노릇스



타냐



안디옥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을 보다

글 | 주정애

선교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선교의 문을 남편을 통해 열어주셔서 기꺼이 선교 신청을 하고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아무것도 모른 채, 첫 선교팀 미팅을 들어갔습니다. 미팅을 들어가 보니 퍼스펙티브스를 이수하면 4주의 훈련 중 2주는 생략해도 된다 하기에 필수과목인가 보다 하고 답석 등록을 했습니다. 13주의 어마 무시한 읽을거리들과 숙제와 발제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고, 일주일이 선교팀 훈련과 미팅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제 와 돌아켜보니 선교에 보내기 위해 순서대로 예비하시고 훈련시킨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란 무엇인가? 가는 선교? 보는 선교?

훈련과 교육 과정을 통해 '말하라'고 하셨고, "선교를 가게 됐다"라고 말하고, "선교에 같이 가자"라고 말하고, "선교지에서 모든 것을 전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큐티 모임, 목장 모임, 향수 찬양팀 등 제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같이 함께 하시죠!"라고 말을 하니, 기도의 후원과 각각 물질의 후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넉넉하신 분도, 넉넉하지 못하신 분도 각자 나름의 후원을 해주시고, 어린아이의 후원까지 받으며 어떻게 후원하게 되었는지 그 마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은혜의 눈물이 하루도 거른 날이 없게 됩니다.

각각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전해지니 훈련과 교육, 준비 과정을 통해 몸은 부서지는 것처럼 힘들었지만 마음에 날개를 단 것처럼 신이 나서 선교를 준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회계를 맡게 되어 팀 미팅에 들어가 보니 제가 막내여서 "아~ 다해야겠구나!!! 섬기라고 보내셨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계 일을 하면서 선교 준비를 깊숙하게 보게 되고 자세히 듣게 되다 보니 여러 가지 고민도, 생각도 많아졌습니다. 친정 엄마가 딸의 집을 방문하듯이 알뜰살뜰 준비하고 풍성히 채워 가며, 선교사님의 가정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선교지로 출발하면서 모든 이동 수단에 멀미가 시작되었습니다. 비행기 멀미, 차 멀미, 뱃멀미... 팀원들 모두 감기가 걸리고 시차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육체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선교지는 퍼스펙티브스를 넘어 현장 학습의 연장선이었습니다. 배운 만큼 보인다는 말이 떠오르며 이래서 퍼스펙티브스가 필수과목이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의 선교사님은 16년 전 안디옥에 4대 선교사로 오셨다고 합니다. 주부 생활도 10년 하면 전문가가 되듯, 선교사님도 전문가 되어 있었고,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을 향해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확인했습니다.

튀르키예는 1세대의 부모 성도와 2세대의 자녀들의 믿음으로 추수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게 되었고 그동안 사역하신 선교사님들과 단기 선교팀의 헌신과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여러 사역들이 있었지만, 난민 캠프 방문은 처음 느껴보는 복받치는 감정과 눈물이 솟구치는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제 눈물을 보면 상처가 될까 봐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으려고, 꺾꺾 수백 번 눈물을 참아냈습니다. 처음 맡는 냄새, 꼬질한 옷, 천막...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냄새 맡아지는 모든 것이 눈물이 울컥울컥 나게 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고 우리 팀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잠시 왔다 가는 단기 선교팀일 뿐인데.. 우리는 각자 마음이 닿는 아이들의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 핸드폰에 적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것뿐! 잠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과 간식을 전하며 낯선 곳에서 우리가 아니면 누가 기도해 줄까!!! 각자 마음에 품고 난민캠프를 나왔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후원하고 성도가 운영하는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제 눈에 띄는 미남이신 분, 헌금함을 돌리시던 분이 운영하시는 가게였습니다. 하나님처럼 온화한 그분의 가게에는 성경 책이 몇 권 놓여 있었고 전도를 하시는지, 가게를 운영하시는지 모르겠다는 선교사님의 농담이 이어졌습니다. 그분의 삶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실천해 내는 과정 가운데 아내와 두 딸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고난을 겪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함과 죄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마음에 이분을 기도로 품고 나왔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돌보고 있는 쿠르드족 가정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예배의 형식도, 종파도 없이, 쿠르드 언어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3~4가정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널빤지로 지붕을 만들고, 강대상도 십자가도 만들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게 되기를 구하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 역할을 하고 22살 아들이 전도사님 역할을 하면서 주중에 미싱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교회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목사 안수, 어느 종파, 예배 방식도 없는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성경을 읽는 교회였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오직 예수뿐인 것을... 그것 하나면 되는 충분함을 배웁니다. 팀원들은 통성으로 기도하며 쿠르드 교회를 마음에 품고 나왔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의 방문 기간에 맞춘 것도 아닌데, 침례식을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6년 전 전도했던 직장 동료의 침례 증인이 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이 관대, 가족과의 단절과 직장을 얻을 수 없게 되는 사회적 고립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희생하고 감수하며 사는 것을 보니 우리와는 큰 차이가 있음을 보게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 이것뿐이어서 더 많은 것을 보고 전하진 못하지만, 튀르키예 안디옥에서 만난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년 선교를 위해 준비하면서, 더 많은 것을 볼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열어 주시면 내년에도 가고 싶다고, 혹시라도 못 가면 보내는 선교라도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지금은 저의 자리로 돌아왔지만, 쉽게 잊혀질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날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신 것만으로 감사드리고, 이런 마음이 들게 선교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중고등부 겨울수련회

글 | 이지연

BE STILL & REST (Matthew 11:28-30)

When: 1/2/23-1/4/23

Where: Mission Spring Conference Center

Theme: BE STILL & REST Matthew 11:28-30

Guest Speaker: Pastor, Charleston Park

Retreat Leaders:

Youth Pastor, Julie Kim, 14 Counselors for JH(Christine Song, Aria Kim, Grace Chon, Pricilla Ahn, Michelle Park, Jeffrey Shin, Enoch Mun, Samuel Yoon, Yubin Kang, Yumin Kim, Charles Choi, Renee Ma, Elizabeth Hong, Peter Lee), 12 Counselors for HS(Clara Lee, Ashley Chon, Chris Hong, Daniel Kim, Jamie Park, Jason Park, Joel Ryu, Immalla Chen, Alex Ahn, Ensay Kim, Yuha Ko, Sarah Jang) & Praise Team(Stephanie Park, John Kim, Jayson Yi, Lindsay Lee, Joshua Ko) & Program Staff(Nathan Pak, Sarah Jang, Lisa Jyung, Anna Lee) & Team Leaders(Woochan Kim, Jiyeon Kim, Chris Stivers, Sunny Stivers) & Parents Volunteers(Joo Hyun Ryu, Hanna Lee, Joo Yeon Kim, Nam Pil Jo & Hae Young Jo)

2023년 새해가 시작하자마자 1월 2-4일, 2박 3일 동안 2022년 중 고등부 겨울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Charleston Park 목사님께서 강사 목사님으로 초청되어 총 6회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150명의 참가자들이 매일 아침저녁으로 함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소그룹 나눔 시간과 게임, Skit을 통해 서로 친밀해지는 교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2년 9월에 대학에 입학한 대학 새내기 언니 오빠들도 카운슬러로 컴백해 참가해 주었고, 뉴비전 고등부 출신인 선배님들이 찬양팀으로 섬겨주어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복잡하고 경쟁적이고 혼란한 환경 속에 나뉘어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 뉴비전의 중 고등부 아이들이 주 안에서 허락하신 귀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낸 3일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번 리트릿의 주제 말씀처럼 "Be Still & Rest" 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3년 7월과 12월에 있을 여름 수양회와 겨울 수양회에 더욱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기대하며, 우리 아이들의 매일의 삶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보살핌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뉴비전성경학교 간증 바울서신

글 | 김영현

지난 2019년 당시 Covid로 송미혜 집사님의 수업이 도중에 중단되어 매우 아쉬웠었는데, 이번에 동일한 과목이 개설되어 어찌나 반갑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는 바울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이번 바울서신을 신청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직접 을 살았던 12제자들과는 다르지만, 그 자신 또한 사도라는 자부심과 열정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사뭇 인간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학기 바울서신 수업에서는 각 서신이 쓰여지게 된 목적과 배경을 정말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였고, 이번 학기 바울 서신은 대학 전공 강의를 듣는 것처럼 너무나 깊고 풍부했습니다. 실로 그 깊이가 너무 깊어 매번 강의마다 놀라기 일쑤였습니다. 이걸 이 과목을 수강한 모든 분들의 공통된 생각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교사 집사님께서 정성으로 준비하신 각각의 내용들은 단순 지도상의 위치뿐만 아니라 그 시대 역사와 상황을 알려주기에 충분 그 이상이었고, 그러다 보면 매주 금요일 저녁 2시간의 시간은 이 수업을 담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서도 깊은 나눔이 곳곳에 흘러넘쳐서 정말 이번 수업은 내용과 나눔 모두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진심을 담아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 눈물과 깊은 탄식으로 가르쳐 주신 교사 송미혜 집사님의 모습은 우리 모두를 깊은 주님의 사랑과 임재로 연결해 준 너무나도 귀한 통로였습니다.

저는 빌립보서를 매우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교독문을 하나씩 외워야만 용돈을 받을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엄하신 아버지의 훈계로 결국 교독문을 전체 다 외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유독 빌립보서 말씀은 외우기 어려웠습니다. 역시 바울 서신이라 다른 복음서나 시편과는 달리 어렵고 권위 있는 문장이니 말이죠 (빌 2:5-11,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지만 제가 억울하고 답답할 때 저도 모르게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어찌나 생각나는지, 이제는 저희 힘이 되어 주는 단골 성경 구절이 되었습니다.

이번 바울서신을 통해 바울의 전도여행과 여러 가지 상황을 들으며 빌립보서를 다시 읽게 되었는데, 마치 흑백 티비를 보다 칼라 티비를 보는 것과 같이 얼마나 다채롭고 재미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특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말씀 속에서 바울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의 종이 되어 그분의 삶을 재현하고 희생에 동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고 사랑하면 이렇게 썼을까 하는 마음이 계속 저를 감쌌습니다. 바울이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커서 바울이 행복을 한 것처럼요.

저는 바울을 만나러 왔는데, 오히려 바울에 묻어 있는 하나님을 만나 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깊이 잠든 아이를 문득 보면, 내가 아이를 예뻐하고 사랑하듯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이처럼 예뻐하고 사랑하실 텐데라는 생각에 이 겨울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따뜻한지 모르겠습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신 교회 성경학교 팀과 교사 송미혜 집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더 나아가 나의 아빠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앞으로의 삶을 살겠습니다.



뉴비전성경학교 간증 신약일주

글 | 장영미

‘균형 잡힌 신앙은 말씀과 기도의 균형에서 나오며 이를 위해서는 성경 읽기가 필수적’이라고 말씀하신 존 스토틀 목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하기에 저는 말씀 읽기를 사랑합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는 가운데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성경 읽기가 더욱 즐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가을 뉴비전스쿨에서는 주저함 없이 ‘신약 일독’ 클래스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신약성경을 3-4장을 읽어가면서, 그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신약 일독 카톡방’에 올려드리며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새벽닭이 우는 것처럼 계속 선포되고 있었는데 제가 영적으로 둔하여 듣지 못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매일 같은 본문을 읽어나가는 저희 반 형제자매님들의 은혜 받은 구절들을 볼 때마다 그리고 금요일에 그 은혜 받은 구절들을 나눌 때마다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성령님께서 다양하게 역사해 주시게 되었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으며 지금 나에게(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세상의 보이는 것들 너머의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만 크고 작은 것이 무엇인지, 붙들어야 할 것들과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확실히 구별할 수 있어서 저의 삶이 더욱 단순한 삶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클래스를 인도해 주시는 송영빈 목사님께서서는 각 성경의 내용을 잘 요약해 놓은 영상을 준비해 주시며 또 정리-정돈된 프린트를 준비해 주셔서 각 각의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중삼중의 깨달음을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함께하는 형제자매님들의 ‘받은 은혜 나누기’를 통해서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말씀의 보화를 찾아 주셔서 매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매일 3-4장의 성경 읽기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은 오늘 받은 말씀으로 좀 더 깊은 묵상을 하고 싶고, 묵상 된 말씀이 제 삶에 변화를 일으켜 심령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배움의 자리를 주시는 교회가 너무 좋고 송영빈 목사님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향수 간증 믿음과 참 자유

글 | 이은희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되어있다. 짧지만 복음의 핵심에 대해 정확하고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앞으로(갈2:16)'

어쩌면 착한 행실로 의롭게 되기를 힘쓰고자 했던 나에게 다시 본질로 돌아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신 말씀이다. 오직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의인이라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신다. 이미 훌륭한 음식 위에 내가 무언가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애를 쓰지 않아도 된다. 우리의 행위로써 얻고자 하는 믿음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김목사님께서 주셨던 유명 셰프의 음식 위에 내가 계란 후라이를 얹는 격이라는 얘기가 오랫동안 내 마음에 남는다.

또한 이번 갈라디아서 공부를 통해 진정한 자유에 대해 마음 깊이 깨닫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갈5:1)'

한동안 나의 카톡 메시지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성경 구절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때는 자유케 되리라는 말씀이 그저 좋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분을 통해 죄 문제를 해결 받았다는 것이 이미 잘 알고 있던 사실임에도 나에게서는 뜨거운 감사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가 강하게 깨달아지며 내 마음속 깊이 감사가 흐른다. 자유를 누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방종일 뿐이며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삶으로 다시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만이 내 삶의 방식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꿔게 한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진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린다.



향수 간증 마더와이즈 회복반을 마치며

글 | 전연향

마더와이즈 회복 반을 통하여 나는 나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막연한 부분까지의 나 자신이 회복하는 것과 또 두 아이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클래스를 조인하게 되었다.

회복 반을 들으며 처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신부로 택했다는 사실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되면서 회복이 시작되었다. 주님의 소중한 생명까지도 나를 위해서 사랑으로 희생하셨고 나는 그 사랑의 빛 진자로서 나의 삶을 어떻게 갚으며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다. 수업을 듣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거대한 깔때기로 나의 마음속에 흘러 들어와 역사하시면서 그 사랑으로 내가 피클처럼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을 바라시는 것 같았다.

또한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를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3:20) 말씀처럼 늘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이나 나를 찾아왔을 때 잘分別하고 깨어 있어 주님을 잘 만나기를 고대하며 준비하고 있어야 하기에 나를 더 신부로 준비하게 하셨다. 그런 신랑을 기다림 중 한 가지는 뭔가 일어날 일에 대비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사람들에게 봉사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다. 기다리는 일과 섬기는 일을 모두 해야 한다는 것도 새롭게 알려 주신 내용이다. 또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크고 과시하는 듯한 화려한 신앙적 행위에는 상을 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겸손과 열정으로 섬기는 행동에 상을 주신다고 한다.

남편은 나를 아프게 사포질을 하는 사람이 아닌 나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도구라는 것도 새롭게 주신 내용이다. 무엇보다 이번 회복 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바쁜 일상으로 정체성 없이 또 주변에 휩쓸려서 살고 있거나 자신도 나를 잘 알지 못하는 나를 보게 하셨고 이번 기회에 나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하시며 나를 점검 하길 원하고 건강하게 회복해야 함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또 온전하게 우리 아이들의 예배 참석을 6S기도를 통해 응답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험시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제가 되기를 소망한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향수 간증

글 | 박순희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편 3절

이 말씀을 암송하고 2주 지날 때쯤 저는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대학 기숙사에 있는 딸아이가 아침 7시에 생일축하한다는 특과 음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아이가 2살 6개월 때 저에게 준 생일선물이 생각났습니다. 침대 위에 아직 누워있던 저의 귀에 생일 축하한다는 속삭임을 시작으로 하루에도 여러 번 놀다가 달려와서 축하한다고 말하여 준 잊을 수 없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시편 100편 3절 ‘우리는 그의 것이니’라는 암송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저의 것(?)인 제 딸이 저를 하루 종일 생각해주는 것이 이렇게 기쁘는데, 아버지 것인 저는 그분을 하루 종일 생각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365일은 할 수 없지만 1년에 단 하루, 딸아이가 저를 기쁘게 해준 것처럼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저의 생일인 그날, 딸아이의 축하 특을 받으면서 저는 아버지께 수시로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다음 날이 되었는데 저는 계속해서 아버지께 사랑한다고 수시로 고백하게 되었고 그다음 날도, 그다음 날도 아버지께 수시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4일이 지나고 문득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친밀감이 주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느꼈던 그 친밀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26년 전에 주님을 영접했으나 매년 유산을 하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영접한 지 7년째 예쁜 딸을 낳았지만 첫사랑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와서 뉴비전교회를 다니며 향수의 모든 소그룹을 섭렵하고 금성의 모든 단계를 마치고 전도폭발 5년을 섬기면서 조금씩 회복됐으나 첫사랑의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첫사랑이 회복된 것인가? 이 친밀감은 내가 그리워하던 바로 그것인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 저는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고백을 하루에도 수시로 했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넘쳐서 저절로 고백했던 것이었고 이번에는 제가 ‘사랑한다’라는 결정(선택)한 행동이 먼저였으나 그 후에 아버지와의 위대한 친밀감이 마음에 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선택(결정)하여 아버지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이 선택의 시작은 성경암송이었고 또한 딸아이를 통한 성령님의 간섭이었습니다.

이슬비 암송 반은 총 5단계가 있기 때문에 1단계를 4번 하면 10년이 지나 갑니다. 그래서 1단계를 12번 하면 저는 90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아버지와의 위대한 친밀감,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 준 이슬비 암송 반을 그때도 계속할 수 있는 복이 저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마더와이즈 회복반을 마치며 향수 간증

글 | 이지영

늦었지만 장성한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지혜로운 엄마로 회복되고 싶다는 소망을 갖고 회복반을 등록하였다. 오랜만에 향수 대면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다시 나와보니 많은 갈급함이 해결되는 것 같은 짜릿함이 느껴졌다.

마더와이즈 회복 반은 개인적으로 매일 성경 묵상, 기도, 교재를 읽고 답하며, 소그룹 모임에서는 사랑으로 은혜를 나누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중보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귀한 초대였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볼 수 있었고 유대인의 결혼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플랜과 마음을 알아가며, 나는 열정적으로 사랑받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정체성을 확신하게 된 시간이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신부의 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다. 나는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이다. 이제 이전의 내가 아니라 그분의 신부로 소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를 다짐해 본다.

오이가 피클이 되는 과정처럼 주님의 말씀에 꼭 잡겨 깨끗하게 씻겨지면 새로운 존재가 되어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살아있는 미크바의 물, 주님의 말씀 속에 늘 잠기길 원하고, 또 나에게 필요한 개인적인 레마의 말씀으로, 더 깊은 은혜로 매일 새롭게 열어주시길 원한다. 마음속의 레마가 꺼지지 않아서 이 땅의 상황을 천국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되길 기도한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 계시로 보여주신 우리의 신혼집 새 예루살렘을 상상해 본다. 나의 삶도 주님 보시기에 좋아서 신혼집을 지으실 귀한 건축재료인 한 장, 한 장의 보석 벽돌이 되길 바란다. 한 영혼을 위한 간절한 기도, 가족을 위한 수고, 나의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헵시바'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부라는 새 이름에 어울리는 장신구가 되어 주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에 드리워지길 바란다.

이번 공부는 우리 목장 자매들과 함께해서 너무 즐겁고 감사했다. 아기를 키우는 어린 자매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감동이었고, 커피와 간식으로 서로 섬기는 자매님들, 사랑과 격려로 멘토링하시는 리더님.. 한마음으로 참여하며 하루같이 지나간 행복한 시간이었다.

회복 반에서 함께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 응답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펼쳐서 보여주시고 깊은 회개로 인도하신 성령님 찬양합니다. 더욱 친밀함으로 곁에 와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에서 조용히 당신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생명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향수 간증

엄마라는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 성은진

아직은 누군가의 엄마라고 불리는 것이 어색한 2년 차 엄마입니다. 엄마가 되기 전에는 집에서 맛있는 걸 해주는 엄마보다 돈을 잘 벌어서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사줄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었고, 가정을 위해 자신의 취미와 꿈 모든 걸 희생하는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니다. 어쩌면 그때의 저는 엄마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 같은 대학원에서 공부하며 아이를 낳은 뒤, 하나님께서는 6개월 전 남편의 졸업에 맞춰 저희 가정을 미국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곳에서 오로지 가사와 육아를 하게 하셨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 삼시 세끼 밥 차림, 돌이 막 지난 아이를 혼자 온종일 본다는 것은 참 우울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았던 한국에서의 삶이 그리웠고, 둘째가 생겨 입덧을 시작하면서는 육아 도움받을 수 있었던 부모님의 손길이 그리웠습니다. 그렇게 쌓인 집 안에서의 힘듦과 스트레스는 퇴근 후 남편에게 고스란히 전해졌고, 힘든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을 위로하기보다는 나의 힘듦을 알아주기만을 바랐습니다. 타지에서 일, 영어에 적응하는 남편을 들어주고 이해하기보다는 그런 기회라도 있는 남편이 내심 부러웠고 나만 삶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에 더 힘들었습니다.

그즈음 교회 권사님으로부터 마더와이즈를 소개받았습니다. 지혜 반에서 함께 공부하며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의 우선순위가 한참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아기가 행복하고 가정이 평화로울 수 있으니 무조건 나가서 일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저였는데,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와 엄마가 가져야 하는 사명이 명확하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라는 우선순위 속에서 경건한 후손을 낳아 엄마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가정에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면서는 결코 경건한 후손을 낳을 수 없으며, 자기만 챙기는 자기중심적인 생활 방식으로는 엄마라는 자리가 요구하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제게 참 와닿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잠시 내려놓고 가정을 기도로 세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제게 원하시는 일이시며, 그것이 곧 나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제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길이라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성령님께서서는 제게 해도 티가 안 나고, 하지 않으면 티 나는 집안일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남편 직장에서의 일을 이해해 주며 맛있는 저녁 한 상으로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향수 간증

마더와이즈 자유반을 마치며

글 | 정선경

혼자만의 희생이라고 생각했던 이 시간이 제게도, 아이에게도, 그리고 우리 가정 모두에게도 축복과 은혜의 시간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그 사랑을 아이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엄마가 되겠습니다. 제게 엄마라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 초 그동안 다니던 한국 교회를 떠나, 미국 교회로 나가게 되었다. 길었던 팬데믹 기간과 새 교회에 적응하는 기간 동안 흐트러진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께 집중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오래전 둘째를 임신하고 향수 예배와 마더와이즈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이 떠올라 바로 등록을 했다.

지금은 아이들도 많이 자라서 또 다른 고민들이 생겼고 이 마더와이즈 자유를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바뀌어 질까 하는 기대감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아이들을 바꾸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서 그분의 사랑으로 먼저 충만하게 채워지고 나의 옛 생각을 버리고 매일 나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롬 8:37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힘을 얻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향수 간증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글 | 전지영

첫째 아이와의 대화가 어려워지고 잦은 갈등이 있을 때쯤 마더와이즈 자유 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춘기가 일찍 온 것인지 얼마 전부터 혼자 방에 있는 걸 좋아하고 제가 질문을 해도 대충 답하고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아이의 태도에 버릇없다고 꾸짖고 화를 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며 엄마는 자기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그동안의 서운함을 말했을 때 마음이 아프고 미안했습니다. 그날 밤 기도하며 회개했습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키울 수 있게 저를 인도해 주시길... 아이에게 부담을 주고 스트레스를 주고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잘 이끌어 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했던 말들이 힘들게 했던 모양입니다. 나의 욕심이고 아이의 의견을 무시한 나의 계획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더와이즈 교재 지혜로운 팁에 적용으로 도 시락통에 미안하다는 쪽지를 넣어주었습니다.

앞으로 화부터 내는 엄마가 아닌 들어주고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엄마가 되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단절시킨 건 아이의 사춘기가 아닌 저였습니다. 얼마 전 학교에서 가는 사이언스 캠프가 있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처음으로 가는 학교 여행에 들떠서 신나게 떠나는 딸을 배웅하고 바로 향수 예배에 왔습니다. 자유 반 자매님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하는 데 걱정되는 마음에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걱정과는 달리 너무나도 재밌게 일정을 마치고 온 딸과 밀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밝은 얼굴로 신나서 얘기하는 모습에 참 감사했습니다. 저와는 떨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하시고 보호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 자유 반 숙제를 하면서 실천했던 지혜로운 어머니 팁, 마더링 스킬을 통해 아이와 저, 모두를 조금씩 변화시켰습니다. 동생 없이 둘만의 보바 데이트를 가졌을 땐 핸드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붓한 대화를 즐겼고, 런치 박스에 짧은 메모를 통해 마음 전하고 서로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엄마의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기도하며 격려하는 것이 나의 할 일을 깨닫습니다. 물론 지금도 잔소리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기다려주고 지켜봐 주려고 노력합니다. 사랑만 줘도 모자라는 시간에 상처를 주고 마음 아프게 만들지 말아야지, 또 다짐합니다. 엄마가 되는 것이 처음이고 또 너무 나약한 인간이기에 말씀으로 매일 채워지지 않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혼자라면 걱정하는 시간으로 보냈을 일들도 소그룹에서 함께 나누고 공감해 주며 기도해 주셨기에 힘이 되고 감사했습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앞으로도 온전히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향수 간증 자유의 큰 보따리

글 | 손주영

나는 자꾸 넘어진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또 넘어진다.

나를 넘어뜨리는 그것이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려고 바리케이드를 대문 밖
저 멀리에 넓고도 높게 쳐 놓았지만, 그것은 자주 나에게 찾아와 나를 넘
어지게 한다. 하지만 마더와이즈 자유를 배우며 넘어지지 않으려던 나의
모습도 육신ियो.

넘어지지 않으려고 붙들던 것들도 육신ियो.

넘어진 것을 들키지 않으려는 모습도 육신임을 깨달았다.

나 혼자 힘으로 달고 맛있는 과일을 내려고 땅을 비비는 노력이 나를 넘
어뜨림을 알았다.

그냥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강하게 붙어 있으면 난 넘어지지도 않고 강
한 단물을 낼 수 있다.

병은 고침 받았으니 떠나라는 주님을 말을 듣고, 한 발짝 걸은 후 다시 숨
관처럼 주저앉아 다 나은 몸을 붙들고 아픈 행색을 하고 있다. 도돌이표
처럼 여러 번, 여러 방법으로 고침을 받은 그 길에서 나는 다 나은 다리로
절뚝거리며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이제 포도나무에 가장 단물을 내는 아름다운 열매다.

이번에는 들것을 들고 힘차게 일어나 멀리멀리 주님이 알려주시는 넘어지
지 않는 단단한 땅을 밟으러 떠나려고 한다. 주님의 주신 자유의 큰 보따
리를 둘러메고



향수 간증 마더와이즈 자유반을 마치며

글 | 박민주

저는 지난 학기에 마더와이즈 지혜 반을 수료했기에 이번 학기에는 자연
스럽게 자유 반에 등록하는 게 맞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찬양팀 반주자
로 섬기면서 아직 제가 탁월하지 않기에 스스로 소그룹까지는 하기가 힘
들다는 핑계로 자유 반에 늦게서야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한다고 생각했기에 혼자 기도하면서 자
녀 양육 문제 역시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다는 교만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자유 반을 통해서 '혼자'가 아닌 '우리'로 함께 할 때 성령님이 부어
주시는 은혜와 중보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기쁨지를 직접 체험
했습니다. 특별히 '육신'이라는 옛 자아를 실제로 매주 말씀과 교제의 내
용을 통해서 '십자가'에 매일 못 박으면서 고통스러웠지만 자유와 감격, 능
력, 기쁨을 체험했고 실제적인 마더링 팁과 중보기도와 나눔을 통해서 기
도 응답을 받으며 사춘기에 접어든 첫째 딸과의 관계가 많이 회복되고 매
끄러워지는 감사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늘 아이가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과 내 잣대로 아이를
판단하며 믿음과 감사의 모습이 없었던 부끄러웠던 엄마의 모습이 저였음
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괴로운 시간 속에서도 말씀과 다른 따뜻한 팀원분
들의 공감과 중보기도로 정말 많은 위로와 기적 같은 매일의 열매가 가정
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매주 따뜻한 격려와 위로로 공감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해 주신 리
더 집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저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어리석어도
계속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해주시는 좋으신 아빠, 하나님께 모든 영광
과 사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향수 간증 마더와이즈 회복반을 마치며

글 | 안지현

이번 학기는 저에게 3번째 학기였습니다. 3학기 동안 항상 시작 전에 내 마음에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클래스를 들으면 나눠야 하는 부분도 고민이 되고 또 찬양팀 봉사만으로도 약간의 벅찬 마음이 들어서 클래스는 듣지 말고 찬양팀만 할까 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학기 때 마더와이즈 자유 반을 생각해 보니 이번에도 안 들으면 후회할 것 같은 마음도 들면서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 지난번 자유 반을 같이 했던 자매님 한 분이 이번에도 같이 하자고 권유를 하시길래 아는 분이 같이 하면 조금 덜 어색하고 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복 반을 하면서 항상 수업의 시작이었던 6s 기도는 지난 학기 때도 그랬지만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반 자매님들과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진심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생각하니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기도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교제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주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큰 값을 치르셨는지 알게 하시고 또 내가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감으로 내 모든 것을 위로받을 수 있고 마음이 회복되는 경험을 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위로만이 진정한 위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공허하거나 속상하거나 우울해지면 다른 곳에서 위로받으려고 했던 제가 이번 클래스를 들으면서 진정한 위로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영화를 보면서 위로받는 대신 기도와 묵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가져야겠다는 결심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더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는 마음과 또 지혜를 준 회복 클래스를 들은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향수 간증 3단계를 마치며

글 | 유정란

팬데믹 동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작년 가을 하이 스쿨 시니어인 둘째 아이의 바쁜 활동으로 성경 공부를 다음 학기로 미룰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남편이 먼저 1단계 성경 공부를 등록해서 해 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재택근무를 하며 바쁜 회사 일과 많은 미팅들로 늦게까지 일하는 남편을 보았기에 먼저 성경 공부를 하자고 먼저 제안해 주는 남편의 모습이 사실 놀랍기도 했지만 주님의 이끄심에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부부는 1단계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3단계 수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향수 예배로 저를 이끄시고 말씀으로 저를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3단계 첫 수업 시작 전에 수업 교재인 리처드 포스터의 “영적 훈련과 성장” 책을 먼저 픽업했습니다. 항상 책을 읽기 전 먼저 그 책의 목차를 훑어 보는 습관대로 책을 넘겨 목차를 보는 데 세부적인 내용들이 모두 훈련의 연속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수업 시작도 전에 3단계 13주 과정을 잘 마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매주 숙제를 하며 자매님들과의 나눔 속에서 한 주 한 주 주님의 은혜가 충만했고 감사가 넘치며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하여 함께 드리는 기도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었고 기도 응답을 받은 나눔 속에서 자매님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내 일처럼 함께 기뻐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3 단계 과정을 통해서 정해진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에 묵상과 기도 훈련을 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다이어트도 해 본 적이 없는 나에게 금식 훈련을 하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의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섬김의 훈련을 하며 세족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건과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며 보여 주신 섬김의 모습. 주일 저녁에 남편의 발을 씻어 주기 위해 따뜻한 물을 준비하고 깨끗한 수건을 준비했습니다. 결혼 20주년이 지났지만 남편의 발을 그동안 한 번도 씻겨 주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앉고 저는 무릎을 꿇고 준비 하는 데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하고 쑥스러움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손을 내밀어 저의 두 손을 올려 잡아주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정란 자매 ~~” 정란 자매로 불러주며 시작하는 남편의 기도에 마음이 숙연해지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뜨거움이 마음속으로 밀려와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을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3단계 훈련 과정을 통해서 저를 뒤돌아보며 깨닫게 하시는 시간을 가지며 내 삶 가운데, 마치 내가 주인이 된 것처럼 행하였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잊지 않고 주님께 뜻을 구하며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매주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도록 따뜻함과 온유함으로 격려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깨달도록 이끌어 주신 리더 김영미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 한 주 처음 해 보는 실천의 훈련들이었지만 주님께 기도하며 3단계 자매님들과 함께하는 나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해 주고 응원해 주며 한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고 자매님들 한 분 한 분, 모든 분과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니 주님 뜻을 구하고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향수 간증 3단계를 마치며

글 | 이지영

3단계의 마지막이 다가오니 1단계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신 과정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1단계에서는 연약한 믿음으로 흔들리는 저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고, 2단계에서는 주님께 순종한 후 겪게 된 시련에 의문을 품고 힘들어했던 저에게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 그 이유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던 영적 장애물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번 3단계에서는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 무얼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그저 이상적으로만 느껴지고, 나와는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가진 분들에게나 가능한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금식 숙제를 하는 동안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려 하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는지 입술로 때로는 영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고자 했을 때 누렸던 평안과 은혜를 통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조금이나마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홀로 있는 시간을 갖는 숙제를 통해서도 내 영이 얼마나 많이 있고 인내심이 없는 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렵사리 짧게나마 온전히 주님 앞에 침묵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을 때는 마치 타향살이에 지친 영혼이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듯 마음이 몽클하고 편안해지면서 참으로 먼 길을 돌아왔다는 생각과 함께 오랫동안 인내하며 기다리신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 감사하고 또 죄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 자매님들과 함께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월드비전에서 보내는 1년에 한 번 기도해 주겠다는 메일이나 매주 주일예배 때 기도 제목 올리면 함께 기도하겠다는 광고를 볼 때면 시큰둥했습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생활을 드러내는 게 싫었고, 만난 적도 없는 이들에게 부탁할 만큼 위급한 기도는 지금 내게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전에 목장 모임에서도 기도 제목을 나눌 때는 적당한 것으로 두리뭉실하게 설명해서 내놓곤 했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일급 보안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목장 모임을 벗어나 잘 모르는 다른 교인들까지 알게 되는 게 괜히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3단계에서는 무엇을 기도 제목으로 나눠야 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여쭙고, 무엇을, 왜, 어떻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지 자세히 나눴습니다. 그중에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을 혼자 해오던 기도들도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진실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준 3단계 자매님들을 통해 한 가지 기도를 빼고는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된 형제자매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다시금 깊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19-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모아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하시며 기도하는 그곳에는 주님께서 함께하신다고 합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서는 많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주님께서 3단계 자매님들이 한마음이 되어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계셨고 신약에서 행했던 그 능력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어났음을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여전히 연약하고 어리석어 성실한 자세로 3단계에 임하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지금 저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게으르고 성실하지 못한 자신이 미덥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데면데면하고, 신앙생활에 의지도 없고 만사가 무기력했던 저에게 억지로라도 형식적으로라도 배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 자리로 이끄는 성경 말씀을 통해, 다른 지체들의 중보기도를 통해 갓난아기와 같은 믿음을 가진 제가 더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신 존귀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향수 간증 참 평안, 참 자유

글 | 임은영

1단계를 마친 뒤 10년의 공백 후에 2022년 봄 학기에 2단계를 마쳤고 드디어 3단계를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모든 감사드립니다. 결코 내 의지나 계획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1단계는 두 분의 목사님을 통해, 2단계는 마더와이즈 회복에서 기도 짝꿍 집사님을 통해, 3단계는 금성 성경공부를 같이하자고 한 동갑 친구를 통해 하나님의 온유한 초대가 있었습니다.

3단계 첫 만남에서 한 자매님의 인사말과 솔직한 자신의 소개로 나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교재 한 과, 한 과를 읽으며 내 신앙 전체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2년 반의 큐티로 말씀 목상을 하고 있었고 친한 언니의 아픔으로 중보기도를 깊게 하게 되어서 나는 내가 완성되어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재 33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종교적 의무 실행의 삶이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즉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뿐이다'라는 글을 통해 나의 종교 행실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 나의 내면을 훈련하기보다 성경 읽기, 중보기도 행위 자체가 더 중요했던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복종, 섬김을 배울 때는 내가 제일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했습니다. 내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아무 반항 없이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그냥 순응하며 무난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9:19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말씀 앞에 착한 아이 벽이 무너졌습니다. 복음과 영혼 사랑보다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버겁게 복종하고 순종한 내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 목상과 기도는 더 이상 속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깊게 알기 위한 나의 훈련의 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복종과 섬김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표현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3단계 훈련을 통해 나에게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향수 간증 Everyday Christian

글 | 장리나

저는 이번 가을 학기, 향수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 1단계를 마쳤습니다. 뉴비전교회에 다닌 지 무려 8년 만의 일입니다. 그동안은 화요일에 일이 있어서,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아이들을 맡기기가 여의치 않다는 핑계로 미루어 왔습니다. 40년 가까이 매주 교회에 다니며 들어왔고 읽어왔을 성경 내용이겠지만, 성경은 부끄럽게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 같았습니다. 늘 읽고 지나가던 성경을, 처음으로 요약 숙제를 하게 되면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숙제 요약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쉬 수 있었던 화요일 오전을 포기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첫 몇 주는, '난 이번에도 1단계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겠구나' 싶었습니다. 혹은, 1단계를 마치게 되면, '절대 2단계는 하지 않으리' 다짐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숙제하기가 수월해지고 화요일 오전에 준비하고 교회에 가는 것이 곧 적응이 되었습니다. 예배가 따뜻했으며, 권사님의 열정 넘치는 가르침이 감사했고, 매주 만나는 자매님들의 밝은 얼굴 보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 느덧 저는 매주 화요일 저의 무거웠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가볍게 하시어 예배당으로 옮겨주시에 참 감사하다는 기도를 제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 1단계를 통해서 저는 얻은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기가 이번 1단계를 통해서 제가 얻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일요일 아니면 별로 성경 책 펼칠 일이 없었던 제가,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듯 주중에도 성경 책을 펼쳐보고 읽으며 그것을 이해까지 한다는 것이 참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Sunday Christian'이었던 저는 "Everyday Christian"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경 공부 1단계를 통해서 저는 조금씩 'Everyday Christian'이 되어 가는데 한걸음 가까워졌습니다. 앞으로도 매일 저의 삶 속에 주님이 항상 계신다는 것을 인지할 것이며, 성경 공부도 꾸준히 할 것입니다.





전도폭발 간증

제58기 전도폭발 훈련을 마치며

글 | 장은주

저는 전도 폭발 훈련에 참여하라는 집사님들의 권유와 제안을 여러 번 받았었지만 '남편도 전도 못 하는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자괴감과 모든 것을 암송해야 한다는 것이 큰 부담이었기에 매번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8월 전도 세미나에서 받은 은혜로 더 이상 댈 핑계가 없었기에 등록했으나, 며칠을 곰곰이 생각하며 기도해도 저는 이 훈련에 참여해서 끝마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 발대식 예배 아침에도 못할 것 같은 생각을 하던 중, 아침 큐티 말씀인 디모데후서 2장 2~3절 말씀인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말씀에 저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였습니다. '병사인 나는 지휘관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만 하면 되는구나'로 바로 응답을 받고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은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나는 암송을 다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을 뛰어넘어 깊고 넓은 하나님께서는 매주 암송할 분량을 다 외울 수 있게 은혜를 주셨고, 기도하며 외울 때마다 복음을 선포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매주 참여하는 훈련을 통하여 전도해야만 신앙이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훈련 첫 주부터 영적인 공격이 있었지만, 이것은 나약하고 자신 없는 저에게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느끼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둘째, 전도를 통하여 건강한 신앙인으로 믿음이 굳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말씀에 대한 갈망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픈 열정이 점점 식어 가던 저는, 편히 안주하고 싶었던 게으른 신앙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단지 말씀을 아는 지식에 그쳤던 제가 복음 제시를 할 때마다 저의 고백이 되고 죄인인 저에게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셋째, 전도 폭발 훈련은 전적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복음 전도를 위한 무장된 용사로 세워 주셨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용기도 나질 않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연락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거절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 전도를 통해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일하고 계셨고,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교회에 다니세요?"라는 질문 대신에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으세요?"라는 복음 제시를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곤 하였습니다. 지금은 성령님의 무장된 옷을 입은 주님의 용사로, 평안과 기쁨의 열매로 영혼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넷째, 전도 폭발 훈련은 현장 전도에서 많은 영혼을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확장에 쓰임 받는 전도자로 불러 주십니다.

매주 현장 전도를 통해 전도 대상자들에게서 자신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였고,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선행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착각 비신자를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느 여성은 믿고 싶는데 마음이 공허하고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아 힘들어하다가 결국 마음을 열어 영생의 선물과 구원의 확신을 얻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때, 저도 함께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복음 제시가 잘 되어있는지, 또 저처럼 평신도들에게는 개인 전도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과 기회이며 축복인지를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귀하고 놀라운 역사적 감동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축복의 자리에 성도님들도 많이 참여하는 훈련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넘치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58기 훈련생을 위해 중보해 주신 목사님, 리더로 섬기신 여러 집사님들과 전도 폭발 훈련팀 모두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전도폭발 간증 제58기 전도폭발 훈련을 마치며

글 | 김정훈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출석해 왔기에 전도라는 말은 막연히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같은 분들만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믿음이란, 하나님과 당사자와의 개인적인 만남과 관계라고 생각했기에 누군가에게 전도하는 것이 더 부담으로만 여겨졌습니다. 그 결과, 저는 늘 교회에 다녔지만,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한 적 없는 나약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이런 제가 전도 폭발 훈련에 참여하게 된 것은 제 개인적인 동기에서부터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고령이신 데다가 당뇨에, 투석까지 하고 계셨는데 거기가 위암까지 걸리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소식을 접하고는 두렵고 답답한 마음과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멀리 살면서 따뜻한 안부 인사 한번 못 드렸던 것이 떠오르고, 특히 갑자기 투석을 시작하시면서 아버지께 얼마나 기도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무거운 마음에 저의 어려운 상황을 아시는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아버지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지 물어보셨습니다. 아들인 제가 바라볼 때 아버지는 교인으로 주일날 교회에 다니시긴 하셨지만, 삶 속에서 구원의 확신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실까?
아버지는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지금 아버지께 복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

제 속에 드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곰곰이 생각하는 동안, 그렇다면, 나는 과연 구원받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옮겨갔습니다. 제가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드릴만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아버지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그것이 영혼 구원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이번 전도 폭발 훈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 동안 복음 제시를 암기하고, 현장전도에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직접 실습하는 과정에서 제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더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훈련 과정 중에 아버지의 암 수술이 있었고, 저는 아버지를 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긴 수술 후에도 투석을 받으셨기에 기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투석기로 걸러지는 피를 보면서, 또 병원의 많은 다른 암 환자분들을 보면서 저는 그제야 죽음과 또

영생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기력이 없으셨던 아버지는 제가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도 자주 잠이 드셨고, 저는 그런 아버지를 기다려가며 배운 내용을 마음을 다해 전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산에서 큰 바위를 옮기는 것 같이 영적으로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복음 제시를 다 하는데 두 시간 반이나 걸렸습니다.

처음에 아버지는 천국에 가실 확신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 복음은 막연히 어렵고 복잡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의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많은 시간을 걱정해 묶여 계신 어머니도 다시금 영접 기도를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훈련과정에서 저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을 여러 번 받았습시다. 저에게 있어 그 땅끝은 부모님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찾아뵙고 전도폭발에서 배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권능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속의 땅끝이란 곳이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가족이란 이름으로 가까운 관계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의 간증을 통해 마음속에 특별히 떠오르는 분들이 계시면, 용기 내어 전도 폭발 훈련의 문을 두드려 보시길 권면합니다.

저의 이 모든 훈련 과정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폭발 간증

제58기 전도폭발 훈련을 마치며

글 | 이가화

저는 14년 전에 대학교 교수님의 인도로 교회를 나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양가가 믿지 않는 가족의 가정에서 자란 저에게 하나님은 제가 예수님을 좀 더 쉽게 알아갈 수 있도록 여러 성령 체험을 허락하시고, 때에 맞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며 말씀으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넘치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앙의 뿌리가 없었던 터라 고난이 닥치고 제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면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제 삶의 문제를 저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썼습니다.

또 긴 시간 동안 세상과 발맞춰 살아왔던 저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바꾸기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흑암 같던 광야의 시간 속에서 저는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위의 것이 아닌, 땅의 것을 목상하고 있었기에 받은 은혜에 비하여 저는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이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쫓아가는 삶으로 바뀔 수 있을까 고민했을 때 떠오른 것이 '전도'였습니다. 그 단어를 마음에 품고 있을 때, 전도 폭발 광고가 나왔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받으며 훈련생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전도 폭발이 뭔지 잘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함께 모여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전도지를 나누어주며 노방전도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굉장히 체계적으로 "복음"에 대하여 배우고 암기하며, 또 하나님의 영역이기에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구원"에 관하여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주하는 현장 전도를 위해 말씀을 암송하며 복음 관련 내용을 외우느라 입술을 오물거리는 시간 동안 저는 자연스럽게 땅의 것에서 벗어나 하늘의 것을 목상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전도 때마다 수십 번 들어왔던 복음이, 머리로만이 아니라 저의 영 안에 자리 잡아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번 현장 전도 때에 저희 아빠, 엄마 두 분 다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는 것입니다. 멀리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자주 뵈고 챙겨드릴 수 없다는 것에 자주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돌보아주신다니 감격과 기쁨에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목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할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저기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즉 영혼 구원과 같은 전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도의 과정을 통해 알게 된 것은 다른 한 영혼이 구원받기 이전에, 먼저 저라는 한 영혼에 그 복음이 심어지고 자리 잡아 하나님이 저를 통치하실 수 있는 그분의 나라가 제 마음 안에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라'가 저의 마음 안에 온전히 심어지고 '그의 의'인 예수님을 제가 온전히 구하며 매일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받는 참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물과 피가 값진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 모든 훈련 과정에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누군가에게 전도한다는 것이 막연한 분들이라도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길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



퍼스펙티브스 간증 퍼스펙티브스 5기 훈련을 마치고

글 | 류지철

‘거룩’이라는 구별된 삶이 세상 밖에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우리 크리스천의 특별함이라는 생각이 든다. 혼자 하면, 혼자 살면 주변의 방해 없이 어떻게라도 해볼 텐데 그 많은 시험과 유혹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한다는 게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그 세상의 것들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묵상 등등...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려고 애쓴다. 이 모든 것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줄 때 나는 그 은혜에 힘입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사역도 능히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여전히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충만함의 정도가 얼마만큼일까... 나는 과연 그 충만함이라는 걸 온전히 느낀 시점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제야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어찌 보면 매우 드문 그런 경우 말고, 정말 누구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믿음 가운데 부담과 두려움까지도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이런 준비가 덜 된 듯한 성도들에게도 선교의 당위성과 이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방법과 실천 방안까지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PSP 과정을 통해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그 관계가 이어진 상태에서 나만 열심히 믿고 나만 구원받는다라는 건 어찌 보면 이기적인 것이 아닌가..?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뜻을 무시하는 사랑이 가능한 한가?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관점의 문제이며 정말 그렇게 동의하는가에 대한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지혜. 열정. 부담. 의지. 우선순위. 선택. 실천. 등등등 PSP 과정을 보내며 생각났던 단어들이다. 솔직히 고민이 깊어진다. 나에게 현재 주어져 있는 가정에서의 역할, 직장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 교회에서의 역할과 여러 사역... 여기에 크기에 상관없이 뭔가를 더한다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크다. 물리적인 한계는 차치하고라도 정신적인 부분 또한 뭔가를 새로이 채우는 것이 많이 부담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관점으로 본다면 결국엔 우선순위의 문제가 된다. 다른 사역을 내려놓아야 하나?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닐 수도 있겠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

재밌는 일이 하나 생겼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싶었고 그 친밀함을 구하는 영적 활동을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바깥보다는 ‘나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려고 애썼는데 그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다. 그런데, PSP 과정을 보내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다른 영혼을 함께 바라보다 보니...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마음이 든다. 예배가 즐겁고 기도를 더 하게 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 묵상하게 된다.

여전히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는 나에게 최우선이다. 하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나의 일대일 교류만이 아닌 그분의 사랑하시는 지체를 통해서도 이루어짐을 서서히 깨닫게 되는 것 같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퍼스펙티브스 간증 퍼스펙티브스 5기 훈련을 마치고

글 | 신혜경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 12:3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항상 들어왔던 이야기일 것이다. 다만, 나는 복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이번 PSP 강의 수강을 통해 제대로 알게 되었고 이것은 무척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리스도인이 된 지난 5년간 성경 공부와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한다는 사명은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뜻이라는 것을 들은 나는 머리를 한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좋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역시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네, 참 좋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나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모든 민족이 또 복을 받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놀랍고 대단하심을 새삼스럽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그동안 선교사님들의 역할에 대해 막연하게 타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선교의 핵심은 지속적으로 타 문화권에서 제자를 양육하고 그들이 그들만의 교회를 세우고 자립적인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나아가 그들의 교회가 재생산되는 때까지 현재의 리더를 세우고 양육하는 것이 선교사님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이방인의 모습이 아닌, 그 문화를 이해하고 공부하고 먼저 스며 들어가야 하며 심지어 복음을 전할 때 그 문화 속 유사한 신의 이름을 사용한다거나, 또는 그들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성경의 내용과 연결하여 설명함으로 타 문화권에 조금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선교가 막막하게 생각되었던 부분이었지만, 알고 보니 먼저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부분이었다.

PSP 공부를 통해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하셨는지를 살펴보니,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를 가르치시며 양육에 힘쓰셨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관점에서 돌아보니 나는 끈기 있는 기도와 노력이 필요한 양육 부분에서 조금 힘들어하며 회피하려 했음을 회개했다. 물론 복음의 씨앗을 많은 사람에게 뿌리고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은 나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더 선교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미전도 종족을 위해 기도하고 타지에서 생활하시는 선교사님들께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소통하고 서포트함으로 지금 당장 내가 멀리 가지는 못하더라도 있는 자리에서 선교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실천하려고 한다.

이번 학기 PSP 무사히 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침례식 간증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

글 | 전지혜

저는 기억에도 없는 어린 시절부터 엄마와 함께 교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유년 시절 수련회에서 하나님과 뜨거운 첫 만남을 가졌고 꾸준히 신앙 생활을 하다 대학을 간 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후 이십 대 중반을 넘어서며 삶에 힘이 찾아가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쌓아왔던 저의 신앙도 그 시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방황하다 보니 어느새 제가 하나님을 제 마음의 저 뒤편 어딘가로 밀어두고 제가 스스로 주인 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무렵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던 남편을 만나 미국에서의 삶이 안정을 찾게 되었고 다시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십여 년을 뉴비전교회를 섬기며 여러 차례 침례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여러 사건으로 저를 연단하신 하나님을 마주하고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넘치는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되면서 무엇이든 순종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 4월 침례식을 아쉽게 놓치고 이번 침례식 광고가 나왔을 때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해야지 하는 마음과 또 망설이는 마음도 함께 올라왔지만 침례 클래스 첫날 마음을 잡았습니다.

물 공포증이 있어서 피하고 싶었던 침례식을 이제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몸을 물에 깨끗이 씻어내고 정결하게 하여 예수님과 약속의 약혼식에 참여하게 될 신부의 마음을 갖고자 합니다.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저의 신랑 되어주심에 가슴이 벅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제 마음 어딘가가 아닌 중심에 모시고 살기로 다짐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미리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강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서편 51편 중



침례식 간증 가을 침례 간증문

글 | 조성희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쯤, 어머니 주변 분의 인도로 성당을 다니게 되었고 그곳에서 세례 성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세례를 받기 전 꽤 오랫동안 교리 공부도 다니고 기도문도 외우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세례를 받고 선물로 받았던 목주반지와, 목걸이라고 생각했던 목주를 받고 매우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의 생애 첫 세례는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세례가 무엇인지, 왜 받는지,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왜 기도를 하는지 등의 중요한 알맹이는 쏙 빼놓은 채, 그저 하나의 의식으로 새로운 세례명을 갖게 되고 선물을 잔뜩 받을 수 있어 기뻐던 이벤트였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받았던 세례였던지라 저는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성당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독교 재단의 대학을 입학하면서 매주 의무적으로 들어야 했던 채플 시간에 신문물을 보고 즐기며 왜 내가 이른 아침에 의무적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지 불만이 가득했던 저였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대학 졸업반 시절, 하나님께서는 노방전도를 하는 자매님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다리가 되어주셔서 결코 지옥으로 가지 않고 죽어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내용의 책자를 설명하는 한 자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 제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학교 내 성경공부 그룹에 속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성경에 대해서 배울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성경공부를 하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지만, 저는 취업 준비, 졸업 준비로 바쁘다는 핑계를 들며 세례를 받지 않았고 세례는 그저 형식일 뿐, 하나님을 믿는 내 마음만 분명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세례 받는 것을 미뤄왔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며 사는 동안 저는 점점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잊은 채 일요일에 교회만 가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강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침례를 받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세례의 의미도,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받았던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던 침례, 내가 물속에서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의식이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번 침례를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진정 보여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저를 참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며 또한 침례를 받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침례 간증문을 마칩니다.



침례식 간증 가을 침례 간증문

글 | 조재훈

저는 신앙생활을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러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제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갈 거라는 말을 귀가 달도록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시기는 중학교 때부터 시작했던 큐티 클랜부터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중학교 2학년 여름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처음으로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길게 갈 줄 알았던 저의 성령 충만함은 생각보다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중2, 중3을 학교 큐티 클랜에 몸담고 매일 교회에 갔었던 저였지만, 중학교를 마치고 난 뒤 미국으로 고등학교 유학을 시작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저의 시험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며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방과 후 학교 성경 공부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bom방학 때마다 선교여행을 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러한 좋은 사역 자리에서 큰 은혜를 받을 원해서 그런지, 자주 그 이후로도 죄를 지을 때마다 다짐했던 거듭남이 실패하는 것 같아, 더 이상 이러한 패배감을 느끼기 싫다는 생각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가식적이라고 느끼게 된 계기가 있게 되고부터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의구심도 들었고, 더 나아가 예수님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서 그 뒤로부터는 신앙생활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터진 후, 이러했던 삶이 다시 바뀌는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학교와 가계들이 문을 닫고 일 년이라는 세월을 온통 집에서만 보내게 되니, 저는 무엇을 해도 제 삶이 피폐해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해도, 집에서 운동해도, 게임을 해도, 모든 게 결국 집에서만 이루어지니, 살아있음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어느 순간 저는 점점 인터넷상에서 보이는 소식만 보고 극심한 혐오증에 걸려, 저의 삶의 피폐함은 나날이 극심해져만 갔습니다. 이 모든 나쁜 감정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결국 처음으로 성경 책에 의지하는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했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면 분명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지 않을까 해서 대략 50일 동안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 앱에서 주는 일년 치 성경통독을 첫 50일을 하고 나니, 저는 결국 이 모든 것에 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나와 나를 둘러싼 사람들 그리고 커뮤니티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으로는 본래 죽은 사람들이기에, 이러한 잘못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설령 나조차도 다시 돌아보니 그들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또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느꼈었지만, 다시 죄를 짓고, 낙담하고, 끊임없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 회의를 느끼고, 이 모든 것들이 복합되어서 저 혼자서 단정 짓고 하면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2장 8-9절에서 말씀하듯,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닌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실수를 안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것 또한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나니 저는 더 이상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항상 죄를 지어도 낙담 대신 회개의 자리에 나오고, 이러한 루틴이 반복되는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은 예수님과 연결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기회로 삼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주님과 교회 앞에 증거하고 싶어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ALIVE



고양이

글 | 강신웅

예전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은 많았지만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자신감 결여로 마음속으로만 품어왔었다. 아내는 그다지 동물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딸아이가 대학을 진학한 후 우리 둘이 사는 것이 좀 적적했는지 이따금씩 반려동물에 대한 언급을 하곤 했다. 겨울이 되니 반려동물이 더 생각이 나던 차에 우연히 고양이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다. 그저 스치듯이 식사 때마다 심심할 때 보려고 찻막찻막하게 보던 차에 아내가 관심을 보인다.

“어, 이거 뭐야 동물 나오는 거 보는 거야?”

“응, 그냥 심심할 때 보는 거야”

그러다가 둘이 계속해서 그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자연스럽게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가 흘러갔다. 아내는 강아지가 좋다고 하고 나는 고양이가 더 좋다고 했지만 사실 무엇이든 상관은 없었다. 아내는 이제껏 보지 못한 너무나 강한 반려동물에 대한 어필로 당장이라도 어디서건 데리고 오고 싶은 욕구를 보였다. 강아지만 고집하던 아내는 고양이도 좋으며 빨리 들여오고 싶다고 했다. 이런 반응을 본 적이 없어서 나는 곧바로 웹사이트에서 서치를 하여 구입 혹은 입양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았다. 마침 집 근처 쉼터가 있고 웹사이트에는 개와 고양이의 예쁜 사진들이 있었다. 다음날 바로 구경을 가기로 했다. 딸아йд도 마침 겨울방학이라 집에 있어서 더욱 상기가 되었다.

드디어 쉼터에 방문했다. 일단 스욱 전체를 돌아보았다. 덩치가 큰 대형견부터 손가락만 한 새끼 고양이까지 다양하고 많은 동물들이 있었다. 아내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강아지 위주로 보기 시작했다. 통유리로 된 방 하나하나를 유심히 보며 걸어가던 도중 작고 하얀 고양이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다. 아담한 사이즈에 고개를 뺏뺏이 들고 앉아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눈이 파란색이었다. 하얀 털과 파란 눈동자, 고운 자태, 그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이 녀석에게 우리셋다 넋을 잃고 보게 되고 곧바로 직원에게 보여달라고 하니 방으로 안내하여 우리가 쓰다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두근두근..

좁은 방에서 우리 셋은 고양이를 한 번씩 쓰다듬고 있는데 그르렁그르렁 거리는 소리를 냈다. 이 소리의 의미가 뭐냐고 물으니 우리를 너무 좋아해서 내는 소리라고 한다. 게다가 5개월밖에 안된 아기란다. 그 말이 우리를 너무 설레게 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방을 나오게 되었다. 아내와 딸은 바로 데리로 가자고 강하게 어필했고 원래 구경만 하고 천천히 룡텀으로 생각하자는 계획과는 달리 나 역시 자제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너무 사랑스러웠다. 우리는 긴 대화 없이 곧바로 입양을 결심했다.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집에 오는 길에 팟스토어에 들러 고양이 집, 먹이, 장난감 등을 구입하고 집으로 들어왔다.

단 한 번도 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는 우리는 상기된 모습으로 다 같이 방 한구석에 모여 기대감에 부풀며 일단 이름부터 지었다. Lucy 딸이 지어준 이름, 생김새와 잘 어울리는 예쁜 이름이다. 그런데 쉼터에서의 모습 하곤 살짝 다른 모습이었다. 잘 다가오지도 않고 도망가기 바쁘고 숨기 바쁘고 겁을 내고 눈치만 보는 모습만 보아서 살짝 실망을 했다. 살짝 알맞기도 한 게 밥 주는 소리만 나면 야옹거리면서 온갖 애교를 다 피운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밥만 먹고 나면 혼자 놀기 바쁘고 옆에 다가가면 숨기 바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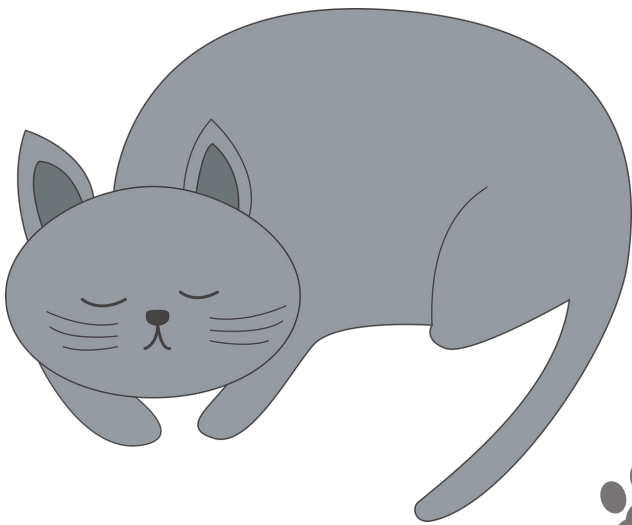
안 되겠다 싶어 고양이 공부를 시작했다. 블로그나 유튜브 등을 보며 고양이 습성과 숨는 이유, 밥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교감해야 하는지 등을 공부해 나갔다. 며칠을 그렇게 공부를 하니 어느 정도는 이해하게 되었다. 왜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왜 숨는지 등등.. 며칠 공부를 하니 자신감이 생겼다. 아내와 딸에게 고양이의 습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고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말라고 해놓고선 정작 나는 너무 많은 걸 기대했다. 볼러도 오지도 않고 다가가면 썩하니 사라지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실망을 하게 되는데 반면 아내는 너무 잘 지냈다. 나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노는 것도 잘 놀아주고 하는데 정작 아내와 교감이 훨씬 더 부드럽고 급기야 질투까지 나게 됐다. 이유가 뭘까?

사랑이다. 사랑으로 기다리고 사랑으로 봐주고 사랑으로 Lucy의 눈높이를 맞춰준 것이다. 그럼 나는 어떻게 했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오면 서운해하고 내가 놀고 싶을 때 안 놀아주고 도망가면 화내고 나의 눈높이에 서만 교감을 시도했다. Lucy의 입장에서서는 위협적일 수도 귀찮아할 수도 있었던 것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이다.

문득 하나님과 나와 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다. 내가 원하는 기도 안 들어 준다고 서운해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면 화가 나고 그리고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만 Lucy처럼 하나님께 착한 척하고 그때만 찾지는 않았을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알면서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숨을 곳을 찾아 도망 다니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보고 싶으실 때 모른척하고 도도하게 내할일만 하지 않았을까?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밖에 안 든다. 나는 겨우 고양이 한 마리이지만 하나님은 손수 지으신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각자 제 할 일만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오면 얼마나 속상하고 서운하실까? 그러다 힘들 때만 찾아와서 주여 주여 외치면 그 또한 얼마나 알밋겠는가?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서운하게 하고 알밋게 행동해도 결국은 우리가 야옹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사랑을 주신다는 것이다.

많은 생각이 교차되며 한 달이 조금 안된 지금, 우리 Lucy는 이제 나의 무릎에도 올라오고 침대에 올라와 얼굴에 뽀뽀도 해준다. 내가 움직이는 곳에 항상 붙어 다닌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깨달으며 글을 쓰는 지금 Lucy는 내 무릎에서 새근새근 잠들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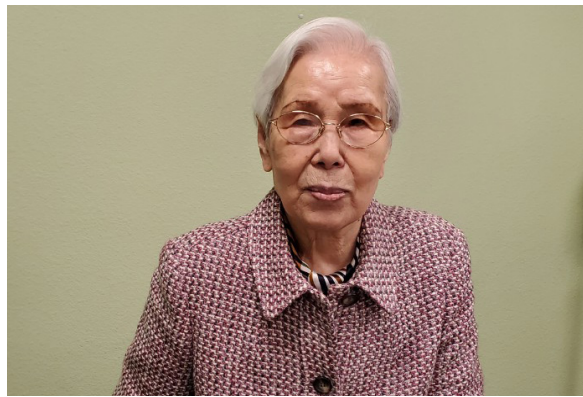


<뉴비전 人>

‘100세 믿음의 어머니’ 김필순 권사

취재 | 배난모

1923년생으로 올해 100세인 김필순 권사님은 매일 한시간씩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그날의 일기에 담는다. 김필순 권사님은 “43년동안 신앙생활했다. 구원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행복이다. 내세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Q. 권사님 너무 정정하신데, 건강 비결이 궁금합니다.

A. 매일 7-8시간씩 꼭 잡니다. 식사는 젊은 시절부터 비슷합니다. 아침에는 커피 한 잔과 함께 샐러드를 먹습니다. 고기는 별로 먹지 않아요. 그리고 소식 하는 것 외에 건강을 위해 특별히 먹는 음식은 없습니다. 또한 매일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일기를 씁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적고 묵상하며 적은 노트북이 140권은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예수 영접한 것이 최고의 건강 비결입니다.

제가 젊을 때는 위궤양, 관절염, 신경통 등 잔병치레가 잦았어요. 그런데 미국 와서 예수 믿기 시작한 이후로는 아프던 곳도 싹 낫고 그후로 큰 병에 걸린 적이 없어요. 젊을 때는 걸을 때도 몇 발자국 못 걷고 주저앉았던 제가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여행도 잘 다니고 걷기 운동도 잘 해요. 몇 년 전에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시력도 더 좋아졌어요. 귀가 잘 안 들려서 크게 말해야 하지만,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Q. 귀가 잘 안 들리는데 예배는 꼭 교회에 와서 드리시네요.

A. 네, 설교 말씀은 모두 잘 들립니다. 성경도 다 따라읽고 찬송도 다 따라해요. 특히 우리 이진수 목사님이 순박하시고 올곧아서 제가 참 좋아해요. 목사로서 자격을 갖춘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노년이 되었지만, 목사님과 교회에 순종하는 사명을 감당해야지요.

제가 말씀 암송한 것을 잊어버릴까봐 무의식 중에 종얼거리는 습관이 있어 예배에 방해가 될까봐 염려가 됐는데, 딸이 목사님께 양해를 구했더니 예배 와서 드리라고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게 교회에 와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Q. 권사님, 얼굴에서 빛이 나시는데요.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가요?

A. 사후 세계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제가 비록 부유하지는 않지만, 부족함이 없어요. 2002년에 남편이 치매를 앓았는데, 구원 확신을 잊어버릴까봐 매일 한시간을 성경을 읽어주고 259장 보혈 찬송을 불러줬어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행복해요. 저는 매일 모국을 위해 기도하고, 둘째, 제2의 조국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번째로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Q. 보통은 자녀의 입신양명을 위해 제일 먼저 기도하는데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니 존경스럽습니다, 권사님. 자녀분들 자랑도 해 주세요.

A. 저희 아들 딸들이 모두 예수 믿고 직분 감당하는 것이 자랑입니다.

첫째 양선희 권사가 먼저 미국에 이민 와서 가족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우리 온 가족을 전도했지요.

둘째 강계성 권사, 사위 강상길 집사, 셋째 김백수 안수집사, 며느리 김명숙 권사, 막내딸 장영미 권사 모두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Q. 자녀들이 아프거나 고통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남편을 먼저 떠나 보내셨을 때나, 자녀가 병에 걸렸을 때 마음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A.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다른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차피 모두가 죽음을 겪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니까요.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이 예수 믿다 실족한 게 아니기에 감사하지요. 자녀들에 대해서는 구원의 확신 갖고 주님 주신 직분 잘 감당하는 것 외엔 바라는 것이 없고, 인생에 후회도 없습니다. 요즘엔 갈 날이 가까워서 그런지, 꿈에서도 남편이 자주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는 걸 까먹으셨나?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오늘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 해도 두려움은 없어요. 주님 믿는 확신 속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으니 감사한 인생입니다.

Q. 믿음의 어머니로서, 우리 뉴비전교회 교인들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A.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이진수 담임 목사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가족은요~

Michelle & Dustin Han 가족



살롱 ~ 이렇게 글로 뉴비전 가족들께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곳 샌프란시스코로 이사 온 지 일 년 차 된 Ashley & Tristan 가족입니다. 먼저 저희 가족을 소개해 드리면 남편 Dustin, 저 한송이 그리고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 딸 Ashley, 그리고 9학년 아들 Tristan입니다. 저희 부부는 캐나다에서 만나 가정을 이루고 Ashley 가 3학년 때 토론토를 떠나 한국에서 6년, 상하이에서 6년, 이렇게 12년을 떠돌다가 1년 전 이곳 샌프란시스코에 갑자기 오게 되었습니다. 매번 다른 나라로 옮기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이곳저곳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가족은 어디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라고 하실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알기에 이제 이곳에서 저희 가족의 새 삶을 뉴비전교회와 시작하려고 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작년 1월에 도착한 Sunnyvale은 낯설고 참 추웠습니다.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막막한 마음으로 두드린 뉴비전교회는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신 분들의 기도와 함께 저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외로운 이곳에서 여성 향수 예배는 2달 동안 침묵하게 하신 주님의 응답이었고, 금요 성경의 사추기 받은 사춘기 트리스탄을 좀 더 사랑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성경 1단계, 2단계에서는 귀한 자매님들과의 교제 속에서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셨고 공부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시간들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남편 더스틴은 처음으로 Youth Media 봉사도 하게 하여 주셨고 그렇게 소망해왔던 1단계도 듣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전도 폭발 1단계를 통해 우리 Ashley와 Tristan에게 복음 제시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매번 다음 학기 신청할 때마다 스킵하고 싶었지만.. 지금 저는 3단계와 함께 전도 폭발 2단계를 훈련받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을 새로운 곳에 옮기시고 예비해 주신 이곳 뉴비전교회에서 저희 가족 모두 열심히 훈련받고 잘 준비되어 주님이 계획하신 일에 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저희 가족과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나누고 싶은 것은, 저는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전도 폭발 훈련을 여러분께 꼭!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같이 누리보고 싶지 않으세요? 오세요. 전폭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고 이한나 권사님을 추모하여

글 | 성혜정 목사

이한나 권사님을 생각하면 “열정”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권사님의 삶은 거룩한 열정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성경 말씀과 기도, 예배에 열정적이었고, 교회 공동체에서 섬김에 열정적이셨습니다. 권사님은 “여호수아 중보기도 팀”을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섬기셨는데, 팀에서 교육받으신 그대로 실천하는 분이셨어요. 기도 제목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으면, 즉시 알려주시고 채근하셨기 때문에, 담당 교역자였던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섬길 수 있도록 도전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정직하고 용감하신 열정도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옳지 않으면 어느 누구 앞에서도 분명하게 ‘아니요’라고 자신의 소신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용기를 지니셨던 분으로, 정직하고 용감하게 신실한 하나님의 여종으로 일생을 사셨습니다.

무엇보다 배움에 열정을 가진 분이셨어요. 뉴비전 성경학교의 과목들을 모두 공부하셨고 은혜 공동체 목자로서도 오랫동안 섬기시면서 배움과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몇 년 전 제가 뉴비전교회에서 사역할 때, 향수 여성 예배에서 60대 이상 시니어 여성들을 위한 온유 반 소그룹을 만들었고, 이한나 권사님을 초청했습니다. “권사님, 향수에 나오셔서 믿음의 여성을 배우시면서 젊은 여성들을 섬겨주세요” 했더니, “제가 나이가 많은데 젊은 여성들 틈에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나이 드실수록 배우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향수 여성 예배에 나오셨고, 온유 반을 섬기는 소그룹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 열정이 얼마나 뜨거우신지, 월요일도 온유 반 큐티 모임과 기도 모임을 인도하시고, 화요일에는 향수 소그룹을 섬기시면서 “온유 반”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어나막한 그룹으로 성장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또한 권사님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잘 개발시키셔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시면서 모든 사물과 사건을 시인의 시각으로 아름다운 시와 간증을 쓰셔서 “뉴비전호”를 통해 모든 성도와 은혜를 나누셨고, 구제에 힘쓰셨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때면 권사님에게 오는 많은 도움의 요청을 하나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generously 베푸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한나 권사님과 자녀들, 미나와 데이빗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권사님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셨습니다. 매년 자녀들과 가족여행을 즐기셨고, 투병하시기 전까지 아침마다 자녀들에게 사랑의 도시락을 싸주셨습니다. 특별히 딸 미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미나가 시켜준 여러 번의 유럽 여행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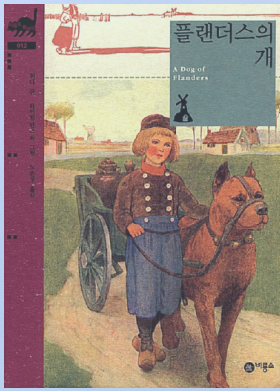
아들 데이빗은 작년 부활절에 Pathway Bible Church에서 침례를 받고, 온 교회에 간증하였고 매 주일 2부 예배에, 앞자리에서 간절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데이빗은 매주 서로를 환영하는 시간에 나에게 다가와, 어머니의 투병상태를 들려주었습니다. 데이빗은 성실하게 Reach Team을 섬겼습니다. Covid로 사람들이 오지 않고, 날씨도 추운데 매 주일 한결같이 지정된 테이블에서 사람들을 기다리곤 하였습니다.

작년 2022년 가을 어느 주일부터 몇 주간 동안, 데이빗을 볼 수가 없어서 이한나 권사님께 여쭙어보니 데이빗이 직장에서 일하는 중에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 갔다 왔는데 의사가 운전하지 말라고 하여 교회를 못 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데이빗이 무슨 병명인지 말하지 않는다고 답답해하시며, 투병 중에 아들의 건강을 더 염려하시면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데이빗도 나를 만날 때마다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함께 예배 드린 마지막 주에는, “어머니가 이제는 키모 테라피도 듣지 않고, 더 이상 치료의 희망이 없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였습니다. 그 말을 권사님께 전해드리니 권사님은 “데이빗 때문에 감동했어요” 하시며 행복해하셨습니다.

이한나 권사님과 데이빗은 그들의 생애의 마지막까지 서로를 먼저 걱정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어머니와 아들의 사랑 모습을 남겨주셨습니다.

이한나 권사님, 그리고 데이빗! 이제 질병도 고통도 없는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We love you and We miss you!



영화로 만나는 아름다운 고전 (22)

<플란다스의 개>

글 | 안재규 목사



* 위다 "플란다스의 개 A Dog of Flanders" (소설의 줄거리)

벨기에 플란다스 지방의 자그마한 마을에 사는 네로는 두 살 때 부모님을 여의고 할아버지와 살며 우유 배달 등 갖은 일을 하며 사는 소년이지만, 늘 네로 편을 들어주고 곁에 있어 주는 할아버지와 여자 친구 아로아, 파트라슈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로와 파트라슈, 아로아는 늘 함께 풀밭에 핀 들꽃 사이를 뛰어다니며 놀입니다.

아로아는 마을에서 제일가는 부잣집 외동딸입니다. 아로아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딸기 사탕을 매일 먹을 수 있고, 장에 가면 금박지에 싸인 견과류와 설탕을 입힌 과자도 손에 잡히는 데로 살 수 있는 풍족한 아이이지만, 네로와 노는 것을 가장 좋아해서 눈만 뜨면 네로를 찾습니다. 사랑하는 네로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므로 네로가 꼭 멋진 화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언제나 삶은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네로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네로는 졸지에 모함으로 인해 방화범으로 몰리기까지 합니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미술 대회 입상도 물거품이 되고 네로는 절망에 빠집니다. 심한 눈보라가 몰아치는 크리스마스이브 저녁에 네로는 파트라슈를 아로아네 집에 맡기고 떠납니다. 엄동설한에 외투는커녕 이미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로 걸으면서 안트베르펜 대성당으로 향합니다. 아로아네서 따뜻한 삶을 보낼 수 있었던 파트라슈마저 뛰쳐나와 네로를 찾아 대성당으로 향하게 됩니다. 네로는 보고 싶어 했지만, 돈이 없어서 보지 못했던 대성당에 걸려 있는 대화가 루벤스의 그림을 드디어 보게 됩니다. 네로와 파트라슈는 루벤스의 그림 앞에서 멀다 부둥켜안고 숨을 거두고 맙니다. 대화가 그린 성화의 제목은 <십자가로 올려지는 예수>와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였습니다. 다음날 사람들은 루벤스의 그림 앞에서 싸늘하게 식어버린 네로와 파트라슈를 발견하게 되는데, 크리스마스 아침이었습니다.

** 책과 영화를 통한 나의 작은 생각.

“먼동이 터오는 아침에
길게 뻗은 가로수를 누비며
잊을 수 없는 우리의 이 길을
파트라슈와 함께 걸었네
하늘과 맞닿은 이 길을
랄랄라 랄랄라
랄랄라랄 라랄라랄
랄랄라 랄라라 랄라라라 라라~~~”

"내가 그 그림들을 볼 수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을 만큼 행복할 텐데..."

<플란다스의 개>에 등장하는 가장 유명한 대사입니다. 영국의 작가 위다가 1872년에 발표한 이 작품은 소년 네로(Nello)와 늙은 개 파트라슈(Patrasche)의 애뜻한 우정과 사랑, 비극적인 운명을 그린 아름답지만 슬픈 이야기입니다. 처절한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사랑에 가득 찬 다스 할아버지와 화가를 꿈꾸는 소년 네로, 충직한 파트라슈가 어떤 순간에도 서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붙들어 주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내 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네로를 가슴 깊이 위해주는 할아버지가 있었기에, 아끼는 딸기 사랑마저 아낌없이 손에 쥐여주는 아로아가 있었기에, 네로가 곁에 없다고 수프마저 거부하며 자기를 향해서 달려온 파트라슈가 있었기에 서로는 숨을 거두는 순간마저도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의 복음의 비전을 향하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 내 편이 되어주는 믿음과 사랑의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편이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호와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편118:6

SOLI DEO GLORIA!
-- 청년 사마리탄 안재규 목사



영화 소개

- * 감상영화: 플란다스의 개 A Dog of Flanders
- * 감독: 케빈 브로드 Kevin Brodie
- * 제작: 1999, 미국
- * 상영시간: 100분
- * 장르: 드라마
- * 출연:
 - * 잭 워든 Jack Warden (예한 다스 할아버지 역)
 - * 제스제임스 Jesse James (네로 역)
 - * 메이딜린 스위트 Madylin Sweeten (아로아 역)
 - * 스티븐 하틀리 Steven Hartley (코제프 역)

설교 토크아보기

길 출판팀

2023 새해 특별 새벽기도회 <예수의 흔적>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 2023-1-3(화) 예수의 흔적(갈라디아서 6:17)

1. 찬송가 240장에 따르면, 요단강 건너 주를 뵈 때,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주님을 알아본다고 하였나요?

■ 2023-1-4(수) 마음에 있는 흔적(마태복음 11:28-30)

2.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신념을 붙잡아 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줄 기둥, 닳은 무엇입니까?

■ 2023-1-5(목) 무릎에 있는 흔적(누가복음 22:39-43)

3. 예수님의 무릎 꿇는 기도에 담긴 세 가지 의미는?

■ 2023-1-6(금) 어깨에 있는 흔적(누가복음 15:3-6)

4.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어깨에 지자고 하는 멍에, 짐은 무엇일까요?

■ 2023-01-07(토) 십자가 자랑(갈라디아서 6:14)

5.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세상이 나를 대하여 ()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답: 1. 손의 못 자국 2. 복음 3. 겸손, 간절함, 경배드리는 모습 4. 우리에게 주신 사명 5. 십자가

내 삶이 일년 밖에 남지 않았다면 (2009.7.12)

글 | 故 이한나

만일 내 삶이 일 년밖에 남지 않았을 때,
나의 만족을 위해 남의 마음
아프게 한 것 회개하리라.

나의 평안이 아닌 편안을 위해 나눔에
인색한 것 회개하리라.

나의 잣대로 옆의 사람
힘들게 한 것 회개하리라.

그가 내게 준 사랑과 옆에
있는 이에게 준 사랑 비교로
잃어버린 감사 회개하리라.

내가 주님의 일보다
사람 앞세운 것 회개하리라.

자식을 우상으로 만든 고통과 아픔
주님 앞에 회개하며 모두 내려놓으리라

내 삶이 일 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나는 이와 같은 것들 회개하며
육은 흙으로, 영혼을 천국으로
포도나무 가지의 지혜로 살리라.

숨 쉴 수 있는 오늘이 있음을 감사하며

사진으로 보는 뉴비전



'사진으로 보는 뉴비전' 코너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교인들의 이런저런 모습을 사진에 담아 뉴비전호로 보내 주세요.
nvcpub@newvisionchurch.org



뉴비전교회

New Vision Church

1201 Montague Expressway, Milpitas, CA 95035
 408-719-0000 | office@newvisionchurch.org
 www.newvisionchurch.org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 Building God's People to Transform the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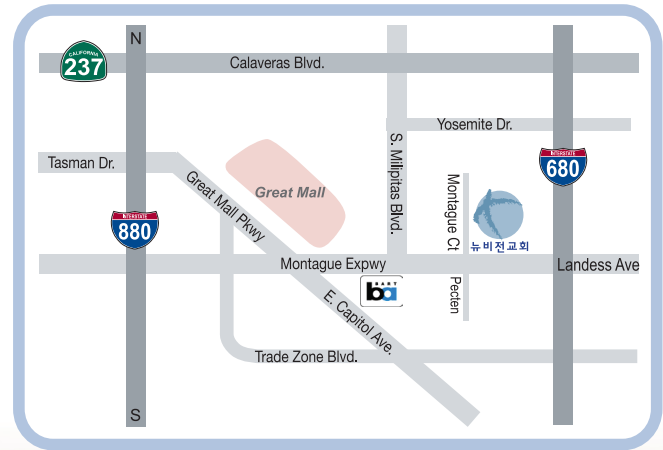
주일예배 | Sunday Worship

1부	8:00 am	본당
2부	9:30 am	본당
3부	11:15 am	본당
4부 청년 열린예배	1:15 pm	본당
영아부 (0-2세)	9:30 am & 11:15 am	본관 Little Lamb Garden
유치부 (3-5세)	9:30 am & 11:15 am	교육관 Noah's Ark
유년부 (1-2학년)	9:30 am & 11:15 am	교육관 New Song Chapel
초등부 (3-5학년)	9:30 am & 11:15 am	교육관 Wisdom Chapel
중등부 (6-8학년)	9:30 am & 11:15 am	교육관 Vision Chapel
고등부 (9-12학년)	9:30 am & 11:15 am	교육관 Lighthouse Chapel
영어대학부(Oasis)	1:30 pm	교육관 Vision Chapel

주중모임 | Weekly Schedule

매일 새벽기도회	5:30 am	본당 (토요일 6:30 am, 주일은 쉬)
화요 여성예배 (향수)	10:00 am	Pathway Chapel
수요 저녁예배	7:30 pm	본당
목요 청년예배	7:30 pm	Vision Chapel
금요 한국학교	4:30 pm	교육관 각 교실
금요 뉴비전성경학교	7:30 pm	본관 각 교실
금요 고등부 모임	7:30 pm	Lighthouse Chapel
금요 중등부 모임	7:30 pm	Vision Chapel
금요 어와나(AWANA)	7:30 pm	Noah's Ark, New Song Chapel
토요 노아대학	9:30 am	본관 및 교육관 각 교실
열린학교	주중 클래스별로	본관 및 교육관 각 교실

- * 어린이부, 중고등부 예배는 2부 3부 장년 예배 시간과 같으며 1부와 4부 예배 시간에는 드리지 않습니다.
- * 예배 후에 장년 목장모임, 어린이부, 중고등부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 * 2021년부터 주일 장년 영어 예배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문의 EnglishWorship@newvisionchurch.org)



Find us on: **facebook.**



NVC Website



SUBSCRIBE TO OUR CHANNEL

